

2016 연세사학 봄 정기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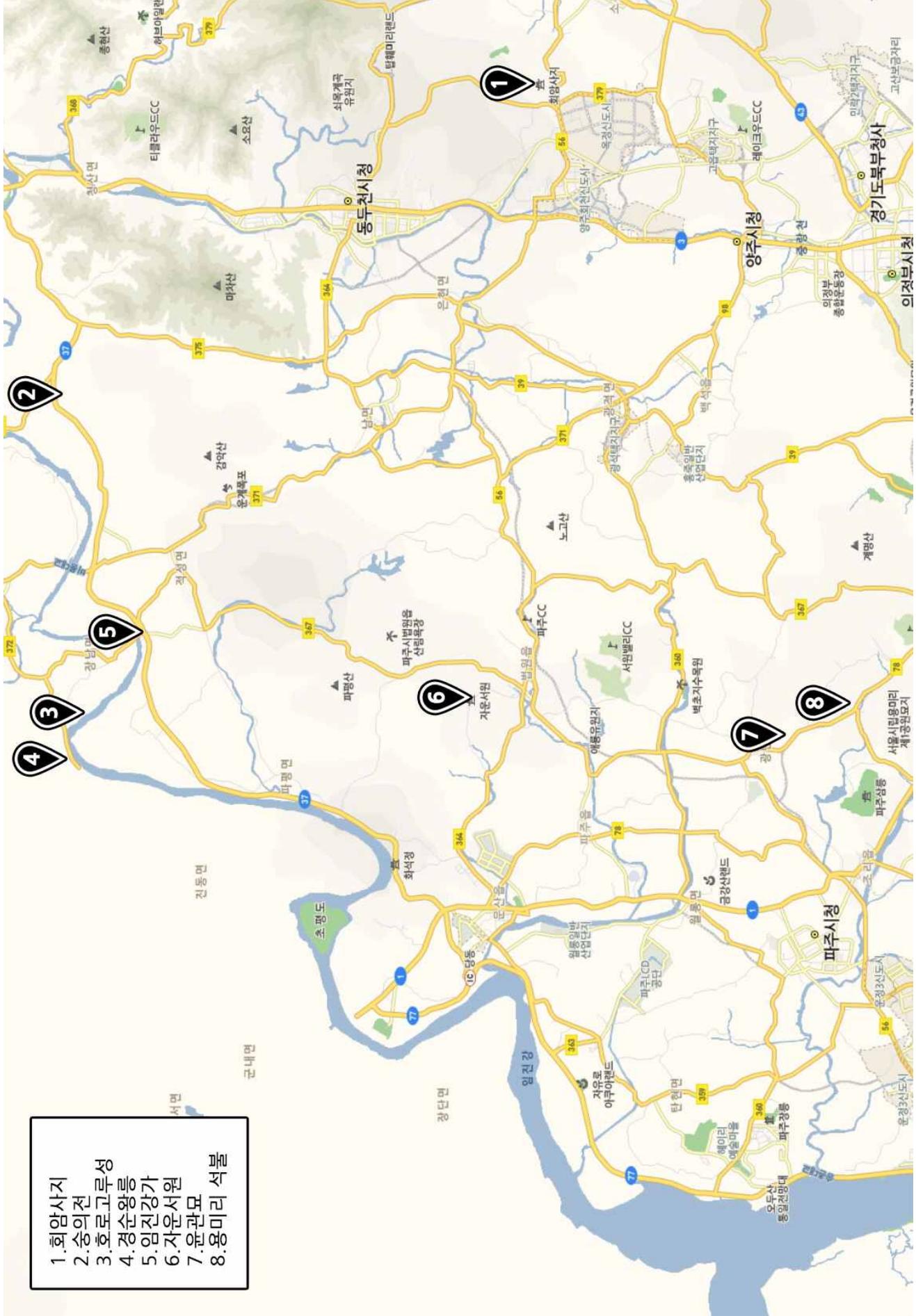
강화 · 경기 북부,
항방도의 봄을 찾아서

강화도 및 경기 북부 일대

이름: _____

목차

여는 글	
답사지도	4
답사일정	6
고대 ~ 고려 초기	
고인돌	8
호로그루성	12
경순왕릉	18
윤관 묘	22
용미리 석불	27
고려 중기 ~ 여말선초	
승천포	32
참성단	34
홍릉	37
삼별초항쟁비	41
회암사	44
송의전	48
조선시기	
자운서원	54
전등사	61
정족사고	63
연산군유배지	71
이건창 생가	73
교동향교	76
근현대	
강화 성공회성당	85
광성보	90
망양돈대	95
평화전망대	97
만든이들	99



- | |
|-----------|
| 1. 회암사지 |
| 2. 송의전 |
| 3. 호로고루성 |
| 4. 경순왕릉 |
| 5. 임진강가 |
| 6. 자운서원 |
| 7. 윤관묘 |
| 8. 용미리 석불 |



1. 교동향교
2. 연산군유배지
3. 삼별초항쟁비
4. 고인돌
5. 흥릉
6. 평화전망대
7. 고려궁지
8. 마니산
9. 이견창 생가
10. 전등사
11. 광성보

답사일정

3월 24일 (목)		
7:30~ 8:00	독수리상 집결	
9:15~10:15	회암사지	(44쪽)
11:00~11:30	승의전	(48쪽)
11:30~12:15	식사 (왕자회관)	
12:30~12:45	호로고루성	(12쪽)
12:50~13:05	경순왕릉	(18쪽)
13:20~14:00	임진강가	
14:40~15:30	자운서원	(54쪽)
16:00~16:20	윤관묘	(22쪽)
16:30~16:55	용미리석불	(27쪽)
18:30~	숙소 (강화 로얄 유스호스텔)	

3월 25일 (금)		
8:00~ 8:30	기상	
10:25~10:50	교동향교	(76쪽)
10:55~11:15	연산군 유배지	(71쪽)
11:45~12:10	삼별초항쟁비, 망양돈대	(41쪽, 95쪽)
13:00~13:50	식사 (덕수가든)	
13:50~14:45	강화 고인돌	(8쪽)
15:00~15:40	홍릉	(37쪽)
16:10~16:45	평화전망대	(97쪽)
17:00~18:00	성공회성당, 고려궁지	(85쪽)
18:30~	숙소 (강화 로얄 유스호스텔)	

3월 26일 (토)		
8:00~ 8:30	기상	
9:20~12:50	마니산 - 참성단	(34쪽)
13:10~14:00	식사 (황토옛집)	
14:00~14:20	이건창 생가	(73쪽)
14:35~15:15	전등사	(61쪽)
15:30~16:20	광성보	(90쪽)
17:50~	학교 도착	

고대 ~ 고려 초기

• 고인돌 김경호, 김진표	8
• 호로고루성 강진주, 김하운	12
• 경순왕릉과 사심관 제도 김해인, 조단	18
• 고려 중기 정치 사회상과 윤관 묘 강태현, 김동연	22
• 용미리 석불 이준희, 변지혜	27

고인돌

15 김경호, 15 김진표

1. 고인돌의 정의와 분류

고인돌은 하부의 묘실 위에 거대한 바위로 뚜껑처럼 덮고 있는 거석기념물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고인돌은 한반도, 일본, 중원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북아메리카, 호주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함경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전남지방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한국에는 약 3만 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새로 발견된 것과 북한지역에서 주장한 것을 포함하면 약 4만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크게 용도를 기준으로 의례적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식 고인돌과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무덤 고인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외형상 형태에 따라서 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위석식 등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은 대개 4매 판석으로 조립된 묘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마치 탁자처럼 생겨서 붙이게 된 이름이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거대한 덮개돌 밑에 받침돌이 4개에서 10여 개 정도까지 있는 것이다. 개석식 고인돌은 땅 속에 석실을 마련하고 그 위를 마치 관을 덮고 있는 뚜껑처럼 크고 납작한 돌로 덮은 고인돌로, 주로 무덤고인돌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위석식 고인돌은 덮개돌 밑을 돌아가면서 빈틈없이 판석 수매가 받치고 있는 형식이다. 특히 바둑판식 고인돌은 한국 고인돌의 독특한 외형적인 형태이다.¹⁾

2. 고인돌의 역사적 의미

우리나라 고인돌은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함께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사회, 경제, 문화상 등을 추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 된다. 고인돌은 주로 해안유역이나 강가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해 농경사회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협력이 필수적인 농경사회 내에서 형성된 공동체의식이 반영된 고인돌은 때를 지어서 군집해 있는데,²⁾ 이것은 요동 지역의 고인돌과는 구분되는 한반도 고인돌 유적만의 특징이다.³⁾ 그리고 덮개돌을 채석하고 운반하는 등의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노동력이 요구되었을 것이 틀

1) 이영문, 2010 「고인돌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그 영향」 『마한백제문화』 18(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66쪽.

2) 박희현, 1984 「한국의 고인돌 문화에 대한 한 고찰」 『한국사 연구』 46(한국사연구회), 13쪽.

3) 오강원, 2002 「요동~한반도지역 지석묘의 형식변천과 분포양상」 『선사와 고대』 17(한국고대학회), 104쪽.

림없으므로, 이로부터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당시 사회에서 부족장 등 지도자가 출현했으며, 그에 따라 계급이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⁴⁾

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계급 사회가 수직적이고 다각도로 분화된 계급사회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배계급의 강압에 의하여 오직 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한 고인돌을 건축했다고 추론하기에는 고인돌의 수가 굉장히 많다. 또한 고인돌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값비싼 청동이나 옥으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다른 고인돌보다 많이 발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비롯된 평등한 사회적 전통으로부터 비롯되어, 존경 받는 부족의 연장자가 부족 전체를 하나의 가족집단처럼 수평적으로 이끌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당시의 부족민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위하여 고인돌 건설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고인돌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 석기류, 청동제품과 장신구가 있는데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와 석기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장유물로는 한반도 내의 고유한 부장유물인 간돌검과 돌화살촉이 있으며, 희소성으로 인해 특수계층만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청동제품은 대다수가 비파형 동검이었다. 토기류는 적



적색마연토기



천하석제 곱은옥

색마연토기와 가지문토기가 있다. 특히 적색마연토기는 붉은 색이 사람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내세의 부활과 재생 등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유추된다.

장신구로는 천하석제 곱은옥과 벽옥제 대롱옥이 있는데, 귀걸이나 목걸이, 옷을 꾸미는데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외에도 반달돌칼이 출토 되어 당시 사

회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4.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

강화도 지역 고인돌의 대부분은 고려산 북쪽에 위치한다. 강화도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간척 사업 사업이 진행되었고, 때문에 현재의 지세를 통해 고인돌들

4) 이영문, 앞의 논문, 67쪽.

5) 위의 논문, 67쪽.

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의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강화도 지역 고인돌의 분포는 1) 대형의 탁자식 고인돌이 날개로 해안가나 평지에 위치한 경우, 2) 산기슭이나 구릉에 2~8기에 이르는 개석식, 탁자식 고인돌들이 운집해 있는 경우, 3) 산마루나 구릉 정상에 전망 좋은 위치에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⁶⁾ 1)에 해당하는 예가 가장 잘 알려진 부근리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길이 710cm, 높이 260cm, 넓이 550cm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축조 집단을 상징하거나 제단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의 대표적인 예는 오상리 고인돌로, 고려산 서쪽 낙조봉의 오목한 곳에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다. 오상리 고인돌들은 무덤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13기가 발굴 후 복원되었다. 교산리와 교천리 고인돌은 산마루에 위치해있다.⁷⁾

강화도 고인돌 유적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붉은 간토기, 팽이형 토기를 비롯한 토기와 반달돌칼과 화살촉을 비롯한 다양한 석기들이 발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토된 주요 유물이 무덤의 규모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열세해 고인돌이 죽은 자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학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⁸⁾



<탁자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위석식 고인돌>

6) 하문식, 2006 「강화지역의 고인돌에 대하여」 『송실사학』 19(송실사학회), 29~34쪽.

7) 이영문, 앞의 논문, 71~72쪽.

8) 하문식, 앞의 논문, 39~40쪽.

5. 고인돌 유적 연구의 한계점

현재 고인돌 연구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석 문화의 상징인 고인돌을 식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산기슭에 위치한 개석식 고인돌은 자연바위와 구분하기가 어렵고, 탁자식 고인돌은 무너진다면 개석식 고인돌과 겹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유사해지기 때문에 고인돌의 분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형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⁹⁾ 또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아 온 강화도 고인돌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긴 연구기간에 비해 발굴, 복원 및 연구가 덜 되었다. 이러한 사료의 제한으로 인해 당시 강화도에 거주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강화도 고인돌과 한반도 내 다른 고인돌 유적 및 요동 반도의 고인돌 유적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강화도 일대의 고인돌 유적의 복원 및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과거 신석기~청동기 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연속유산이며, 세 지역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고인돌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고인돌 보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화재와 주변 환경의 훼손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잡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삭토나 수목의 뿌리로 인해 도괴된 고인돌에 대해서는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정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고인돌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고인돌과 지역의 역사, 문화 사업을 융합시키려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¹⁰⁾

참고 문헌

- 박희현, 1984 「한국의 고인돌 문화에 대한 한 고찰」 『한국사 연구』 46(한국사연구회)
- 오강원, 2002 「요동~한반도지역 지식묘의 형식변천과 분포양상」 『선사와 고대』 17(한국고대학회)
- 하문식, 2006 「강화지역의 고인돌에 대하여」 『송실사학』 19(송실사학회)
- 서순복, 2009 「문화자본으로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와 지역문화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9(한국행정학회)
- 이영문, 2010 「고인돌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그 영향」 『마한백제문화』 18(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9) 위의 논문, 30쪽

10) 서순복, 2009 「문화자본으로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와 지역문화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19(송실사학회), 5~20쪽.

호로그루

13 강진주, 13 김하윤

1. 호로그루성의 지리적 위치

호로그루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2000년 6월 12일 경기도기념물 제174호 瓠蘆古壘址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1월 2일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그루로 변경되었다. 연천군이 관리한다. 호로그루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북쪽은 크고 작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시계를 확보할 수 없는 반면, 남쪽은 두기진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임진강 남안의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호로그루는 남쪽을 방어해야 하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인 것이다.

또한 한강유역에 자리 잡은 경기도 지역은 평야와 교통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예로부터 농경과 교통, 교역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경기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일도 빈번했다.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확보한 뒤, 한강 이남과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기지역 곳곳에 산재한 고구려 성곽에서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 현황

먼저 임진강 상류에는 강서리보루, 고성산보루, 무등리 1·2보루, 우정리보루 등과 한탄강유역에 은대리성이 위치한다. 한탄강과 상류가 합류하는 중, 하류 유역에는 당포성, 아미리보루, 호로그루, 두루봉보루, 덕진산성, 조랑진보루 등의 성곽과 천보산맥 일원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아미성이 배치되었다. 특히 이들은 임진강 상류의 서안을 따라 남북방향을 중심축으로 삼았으며 한탄강과 임진강 중하류 유역은 북안을 따라 북동-남서방향을 중심축으로 하였다. 그러면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유적을 살펴보자.

1) 호로그루

瓠蘆古壘는 임진강 북쪽 강안의 현무암 수직단애 위에 형성된 삼각형 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은 임진강 하구 쪽에서 보면, 배를 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이다. 따라서 삼국은 이곳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지표상 수습유물은 고구려 기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고구려 성으로 추정되지만, 성의 축조방식은 백제계, 고구려계, 신라계가 각각 엿보여 이 지역의 복잡한 세력 교체 상을 알려준다. 호로그루성은 임진강 일대의 도하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기능을 가지며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의 전투 시 최전선의 요충이었다.

2) 고성산보루

古城山堡壘는 연천군 고성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고성산은 해발 150m로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주변을 조망하기에 충분하다. 보루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이며, 가운데에 깊이 180cm 정도의 웅덩이가 있다. 석축 성벽을 쌓았는데, 석축은 정연하지 못하고 많이 무너졌으며 현재 5~6단 정도가 노출되어 있다.

3) 무등리보루군

무등리보루는 남쪽에 있는 1보루와 북쪽에 있는 2보루라 칭해지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루가 위치한 곳은 해발 100m로 나지막한 봉우리이나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곳을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4) 당포성

이 성은 임진강과 임진상의 지류가 형성한 삼각형의 단애 위에 축성되었다. 평면 형태는 삼각형이고 동서 길이 200m, 남북 실이 50m, 잔존성벽의 높이는 6m이며 성벽의 하단으로는 10m가 넘는 단애가 있다. 입지와 평면 형태에서 호로그루나 은대성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성벽 상단부위에 이른바 ‘구멍기둥’들이 확인된다는 점,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홈이 파여져 있고 그 끝에 동그랗게 판 확돌¹¹⁾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구려의 축성술과 매우 유사하다.

5) 은대리성

隱叆里城은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두 하천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삼각형의 대지 위에 축조된 성이다.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편이고 철제 유물도 소량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성에서 흔히 출토되는 기와가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은대리성과 유사한 형태로 축조된 호로그루나 당포성의 경우 호로그루와 당포성의 동벽의 축조방식을 각각 석축, 판축¹²⁾ 위에 석축을 취한 것에 비해 은대리성은 석심토축¹³⁾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양식적으로 한강유역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6) 덕진산성

德鎭山城은 동쪽으로는 초평도와 임진나루 일대, 남쪽으로는 수내나루와 문산을 장산리

11) 확돌을 디딜방아에서 곡식을 넣고 찜는 부분(돌)을 말한다

12)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흙, 돌등을 퍼서 다지는 기초공법을 말한다.

13) 속에는 돌을 넣어 다지고, 바깥쪽에는 흙을 넣어 다져서 성을 쌓는 방법을 말한다.

일대의 조망이 매우 용이하여 북진을 막고 남진에 필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3.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의 관방유적¹⁴⁾

경기지역의 고구려유적은 임진강유역뿐만 아니라 한탄강유역과 양주분지일원 그리고 한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 유적의 분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곽의 배치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찾아보는데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방체계라고 한다.

특히 임진강 유역에서 고구려 성곽의 배치를 분석하여 관방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임진강 상류는 서안을 따라 古城山堡壘, 무등리보루군, 우정리보루 등의 고구려성곽이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무등리보루군은 각각 둘레 200m 내외로 장대봉의 능선에 약 500m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데, 서안에 접하여 남북으로 연결되며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는 둘레 30m 정도의 고성산보루를 배치하였다. 이곳에서 남쪽 1km 거리에는 당포성과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우정리보루가 위치하고 있어 남북을 중심축으로 하는 임진강 상류유역의 방어체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 유역의 고구려 방어체계는 무등리보루군을 거점성으로 북쪽으로 위치한 고성산보루와 남쪽으로 당포성과 연결되는 교통로에 우정리보루를 배치하여 하나의 방어기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진강 중, 하류는 북안에 접하여 6개소의 성곽이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고 있다. 하천 곡류부의 시점에 둘레 400~ 600m 정도의 비교적 규모가 큰 성곽인 당포성, 호로그루, 덕진산성이 배치되어있다. 또한 이들 성곽 사이의 곡류부 종점에는 둘레 40~ 50m의 소규모 보루인 아미리보루, 두루봉보루, 조랑진보루를 배치하여, 임진강 중하류의 북안에 접한 곡류부의 시점과 종점에 거점성과 위성보루를 배치하는 계획적인 관방체계가 이뤄지게 되었다.

임진강유역의 북안에 위치한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그루, 덕진산성은 지리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성곽 중 호로그루와 당포성 그리고 무등리보루군 등에서 고구려 평기와류가 출토되어, 이는 양주분지 일원과 한강유역과는 다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호로그루의 이칭 및 문헌의 등장

‘호로’는 고구려 말로 성을 뜻하는 홀이 변형된 이름으로 ‘임진강에 세운 오래된 보루’란 의미를 담고 있다. 별칭으로는 재미산 또는 재미성, 자미성, 미성, 이잔미성이라고도

14) 국경의 방비를 위해 설치한 진(鎭)이나 영(營), 보(堡), 책(柵) 등 군사적 목적의 시설

불린다.

호로그루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조선 효종 7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인데, 장단도호부 고적 조에 “호로그루는 부의 동쪽 32리 호로탄 위에 있다. 그 동쪽은 적성현과 경계이며, 두 개의 루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석벽으로 인하여 견고하다. 전하기를 삼국시대의 둔수처라고 한다.”¹⁵⁾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다른 기록들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¹⁶⁾

5. 호로그루의 건축양식

호로그루는 해발 22~30m 정도의 구릉 상에 축조된 성으로 삼각형 모양의 평면을 하고 있는데, 전체 둘레는 401m 정도이며, 전체면적은 2천 평 정도이다. 성벽은 ‘한들벌’로 이어지는 동쪽 부분만 남북을 가로질러 협축식 성벽을 축조하였고, 나머지는 내탁하여 편축식으로 축조하였는데, 높이는 대체로 4~5m를 나타내고 있다. 호로그루의 축조상태를 동벽에서 살펴보면 판축부와 석축부, 보축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판축부는 성의 기단부 전체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의 중간부분은 판축토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석축부가 있다. 성 내부의 석축부는 외곽의 석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석재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외부의 석축부는 두텁고 높게 쌓여 있다. 이와 같은 성벽 축조방법은 평양 대성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석축부 바깥에는 보축부가 있고, 보축부의 바깥쪽 기단부에는 다시 점토를 다져 놓은 상태이다. 외벽을 이루고 있는 석축부의 너비는 7m이다. 이 외벽에 잇대어서 보축성벽을 축조하였는데, 체성벽의 기저부보다 약 1.5m 낮은 지점에서부터 축조되었다. 보축성벽은 기저부에서 9단은 바른층쌓기¹⁷⁾를 하였는데, 아랫단과 윗단은 10~15cm 정도 퇴물림쌓기를 하고 그 윗층부터는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¹⁸⁾

6. 호로그루의 출토유물

성벽 정상부 주변에는 고구려 토기편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각종 와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성벽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은 원삼국시대 타날문 토기편이, 그 상층에서는 고구려 토기편이 여러 점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판축토 내부와 보축성벽 바깥쪽의 다짐토 내에서는 와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짐토 윗부분에서부터 고구려 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 암키와편의 승문을 비롯하여 횡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거치문 등 다양한 편이며 그 내부에는 모골과 포흔이 나타나고 있다. 호로그루는 그

15) 차용걸 외 5인, 2003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90쪽.

16) 위의 책, 90쪽

17) 돌쌓기의 일종으로 돌의 면 높이를 같게 하여 가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쌓는 방법

18) 차용걸 외 5인, 앞의 책, 90쪽.

출토유물로 보아 한성공취 이후부터 고구려 멸망 시 까지 사령부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한편, 호로그루에서는 2점의 목탄시료가 발견되어 그 분석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국의 BETA연구소 및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였는데, 두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성내의 건물지 바닥에서 수습된 목탄의 보정연대치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430~620 CE, BETA연구소가 430~660 CE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시료는 동쪽 성벽의 남쪽 단면 동쪽 보축부분의 지표 하 1.4m 지점에서 수습된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결과는 410~650 CE로 나머지 두 자료의 결과와 유사하여 3건의 결과는 모두 이 지역을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호로그루의 축조시기는 동벽을 축조하지 않았던 시기와 동벽을 축조한 이후의 시기로 구분되며, 그 구분 시점은 광개토대왕대에서 장수왕대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7. 호로그루의 4시기 유물출토 양상

호로그루 내에서는 크게 4시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타날문토기, 고구려유물, 신라-통일신라유물, 그리고 고려시대유물이 그것이다. 호로그루의 동벽과 성내부의 시굴트렌치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은 고구려토기와 고구려기와 편이고, 원삼국시대 토기편과 통일기 신라토기편 등이 함께 채집되었다. 특히, 이곳에서 채집된 고구려 기와들은 남한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양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그중 원삼국시대의 유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호로그루가 성으로 기능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이 고구려 유물이고, 그 다음이 신라와 통일신라의 유물이다.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를 볼 때 고구려에 의하여 축조된 이 성은, 신라 문무왕 2년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미를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표로하 부근에서 고구려군과 교전을 벌이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7세기 후반까지도 신라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7세기 후반에 가서야 신라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참고문헌

- 심광주, 1999 『연천호로그루 정밀지표 조사보고서』, 한국 토지공사

19)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집(고구려발해학회) 참조

20) 백종오, 2006 『남녘의 고구려문화유산』, 서경, 74~82쪽.

21) 차용걸 외 5인, 2003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90쪽 .

22) 심광주, 2006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요새 호로그루』, 주류출판사, 76~91쪽.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3 『경기도사 제2권 고대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차용걸 외 5인, 2003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 백종오, 2006 『남녘의 고구려문화유산』, 서경
- 심광주, 2006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요새 호로고루』, 주류출판사
-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집(고구려발해학회)

경순왕릉과 사심관 제도

15 김해인, 15 조단

1. 경순왕릉

사적 제 244호인 경순왕릉은 오늘날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 건너 개성과 거의 수평선상에 위치해 있다. 능 앞에는 단조로운 형식의 비가 세워져 있고, 그 전면에는 新羅敬順王之陵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후면에는 경순왕의 내력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 영조 23년(1747년)에 세워진 것으로, 능의 다른 석조물들도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능에는 봉분을 감싸는 곡장, 호석, 석등, 망주석 등의 석조 장식물들이 있다.

2. 경순왕의 생애와 고려 귀부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성은 金, 이름은 傳이다. 경순왕은 927년, 후백제의 포석정 습격으로 경애왕이 살해당하자 경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경순왕은 이전의 왕인 景哀王(재위 924~927)을 살해한 후백제에 의해 세워진 왕으로서, 상당히 기형적인 왕위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 초기에는 그다지 권위 자체가 불안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후백제에 강경 정책을 편 神德王(재위 912~917), 景明王(재위 917~924), 경애왕으로 이어지는 15년의 박씨왕대의 세력들이 후백제로 끌려가 경순왕이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경순왕 자신 또한 신라 제 46대 文聖王(재위 839~857)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살해당한 경애왕의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침입자 甄萱(867~936)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경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국가적 위기를 이용하여 지배세력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순왕의 권위는 신라 내부 보다는 신라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순왕에게 존왕의 의를 표한 고려와 후백제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외교적 수사에서 비롯된 권위이기는 하지만 경순왕은 이를 이용해 왕권의 강화와 신라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며 점차 적극적인 대 중국, 대 고려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경순왕과 신라가 가진 위태로운 입지는 경순왕 4년(930년) 후백제가 고창 전투에서 고려에게 대패하고 고려의 군사적, 정치적 힘이 커가면서 무너지게 된다. 고려는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주변을 직접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기존 세력을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포섭통합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신라의 많은 호족들이 속속 고려에 歸附했다. 고려의 이러한 유화적인 모습은 고려 태조 王建(877~943)이 경순왕의 요청에 따라 고창 전투 이후 경주에 방문해 장기간 머물렀을 때 기존 정치지배세력을 비롯한 신라 민심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태조 왕건과 함께 경주에 들어왔던 고려군은 경

주를 침략했던 후백제군과 대비되어 경주민들의 큰 호감을 샀다. 지배세력 뿐만 아니라 민심 자체가 친고려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경순왕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기존의 왕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후 신라 주변에 군대를 주둔시켜 후백제의 공격을 막아준 고려의 정책은 고려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켰다.

현실적으로 왕위와 신라의 국가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순왕은 군신회의를 통해 麻衣太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귀부인사를 공론화, 관찰시켰다. 나라를 보존하기 어렵고 고려에 대한 항전이 백성들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명분하에 경순왕을 비롯한 신라지배세력은 935년 음력 11월에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안정숙의공주를 시집보내 그를 부마로 삼았다. 935년 음력 12월 경순왕은 正承公에 봉해졌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다. 또한 경순왕이 왕건의 신하가 되어 경주의 事審官으로 임명받아 副戶長이하 관직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부터 고려의 사심관 제도가 비롯되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경순왕은 고려 경종 3년인 978년 음력 4월에 죽었고, ‘경순’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경순왕을 비롯한 신라지배세력의 집단적 고려 귀부를 통해 고려는 신라를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를 중심으로 한 민족, 정치 통합을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신라의 지배세력들은 이를 통해 고려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고려 정계 진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신라계 인사들은 고려의 중앙집권체제 성립 이후 고려 귀족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의 지방 통제 정책 중 하나인 사심관제도가 경순왕 김부의 사심관 임명에서 비롯한 만큼 경순왕의 귀부는 고려의 정책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사심관 제도

고려의 지방 통제 정책 중 하나인 사심관 제도는 고려 초, 태조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관직에 대한 업무를 맡아보게 한 것에서 유래했다. 사심관은 중앙의 관리가 출신지나 연고지의 향리를 지휘하여 지방민을 다스리는 관직으로, 중앙 관리와 겸직하는 직책이었다. 사심관은 향리의 직무를 총괄하여 백성을 지배하고 부역을 고르게 수취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고 치안을 유지, 流品·家狀의 심사하는 일을 책임졌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 시대 군현제도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고려는 군현제를 실시했지만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할 역량이 되지 못했고, 지방 세력을 통제할 보완책이 필요했다. 또한 사심관 제도가 군현제의 보완책이었다는 점에서, 사심관 제도는 군현제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고 보여진다. 지방관들이 토착 지방 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지방관과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것은 사심관 제도의 또 다른 목표였다. 사심관에게는 부호장 이하의 관직에 대한 업무를 맡김과 동시에 지방관에게 호장(戶長)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은 지방관과 사심관의 상호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리와 사심관 사이의 혈연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사심관이 지방 세력과 유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는 사심관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지방관과 사심관, 지방 세력이 서로 결탁하지 못하고 중앙에 충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 초기의 사심관과 지방관, 향리의 관계는 고려 중기에 이르러 변화를 보인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던 고려 초기에는 지방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개국 공신을 위주로 사심관을 임명하고 지방 세력을 배제했지만, 지방에 대한 지배가 확립된 고려 중기에 이르러 지방에 대한 통제의 목표가 정치적 지배에서 경제적 수취로 변하자 사심관의 임명에 있어 지방 세력의 의견을 존중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고려 중기인 현종 10년경에는 고려 초기 엄금되었던 사심관과 향리의 혈연 역시도 용인된다. 사심관 제도의 목표가 세금 수취로 변화함에 따라 사심관과 향리의 상호 견제보다 긴밀한 관계가 중시된 것이다. 이에 사심관에 대한 향리의 협조와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사심관과 향리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향리의 영향력이 커지자 사심관 제도는 향리 자손의 중앙 진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종 대부터는 지방민의 과거 응시에 있어 과거 응시 자격을 향리의 자제인 기인이 사심관과 더불어 심사할 수 있었고, 향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심관은 향리 자손의 지방민 과거 응시 독점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고려 중·후기에 이르러 향리의 중앙 진출과 중앙에서의 관직 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은 다른 아닌 사심관 제도였다. 빈번해진 지방 세력의 중앙 진출은 결국 충숙왕 대에서 사심관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사심관 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지방 세력의 중앙 진출은 끊이지 않았다.

사심관 제도는 지방에 대한 지배가 불안정했던 고려 초기에 지방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필연적으로 지방 세력인 향리와의 유착이 엄격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지배가 확립되고 제도의 목표가 정치적 지배에서 경제적 수취로 변하는 고려 중기에는 사심관과 향리의 관계가 긴밀해졌으며 이는 향리의 중앙 진출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의 중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향리의 중앙 진출의 배경으로도 사심관 제도가 작동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임현영, 1976 「'사랑'의 위대한 실현 : 백성들의 간뇌(肝腦)를 어찌…」 『나라사랑』 23(외솔회)
- 홍승기, 1989 「고려 후기 사심관제도의 운용과 향리의 중앙진출」 『동아연구』 17(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음선혁, 1997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의 정치적 성격」 『호남사학회』 11(구 전남사학회)
- 김지용, 1998 「경순왕의 애민정신-어느 임금의 백성을 구하려고 왕관을 던졌는가-」 『광장』 207호(세계평화교수협의회)
- 권영오, 2013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한국 고대사탐구』 13호(한국고대사탐구학회)

고려 중기 정치 사회상과 윤관묘

14 강태현, 15 김동연

1. 고려 중기의 정치 사회상

고려 중기 인종 대에, 고려는 내부적으로 이자겸의 난과 서경반란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인종의 아들인 의종 대에는 고려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무신란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여진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다각도로 고려사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²³⁾ 따라서 고려 중기의 왕들은 내부적으로는 왕권강화를 통한 국가 안정과 외부적으로는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려 건국의 주역은 지방호족이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조차도 개경출신의 호족이었다. 하지만 고려 건국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과거제와 관료제를 통해 중앙집권의 결과로 문벌귀족이 새롭게 고려의 주역으로 등장했다.²⁴⁾ 이들은 문벌가문끼리의 혼인과 고위 관직의 독점을 통해 점차 보수화되었으며 정치와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따라서 숙종은 왕권확립을 위해 문벌귀족을 억누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숙종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구법으로 간주했고 개혁정책인 신법을 중심으로 부국강병 정책을 펼쳤다.²⁵⁾ 정책의 일환으로 숙종은 여진 정벌을 이유로 윤관을 필두로 별무반을 창설하였으며, 지방 군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다.²⁶⁾ 이후 예종대에 윤관은 20만의 군대를 바탕으로 여진을 대파하여 6성과 이후 3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이 지역에 병사와 백성을 주둔시켜 고려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성들은 고려의 동북구성으로서 고려의 행정 구역 체계에 편입되었다.²⁷⁾ 그러나 이후 여진의 반격에 고려군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여진의 동북9성 반환 요구에 응했다.

여진 정벌 뿐만 아니라 숙종은 남경의 궁궐을 조영하게 함으로써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의 정치적 기반을 와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득권층의 지속적인 반발과 과중한 역 부담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 되었고, 숙종이 재위 10년만에 사망하자 신법 개혁은 중단된다.

숙종 이후에도 문벌귀족의 성장은 계속 되었으며, 왕권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결국 왕권과 문벌귀족의 대립 끝에 1126년 인종의 측근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이자겸 측의 반격을 시작으로 이자겸의 난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자겸과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척준경이 힘을 합쳐 인종측의 공격을 막아내고 궁궐을 장악했으나, 이후

23) 김병인, 2003 『고려 예종대 정치세력 연구』, 경인문화사, 1~2쪽.

24) 박종기, 2008 「정치사의 전개와 고려사회 성격론」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202쪽

25) 김창현, 2008 『윤관과 묘청, 천하를 꿈꾸다.』, 경인문화사, 54~55쪽.

26) 박종기, 앞의 책, 202~203쪽.

27) 김창현, 앞의 책, 78~79쪽.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함으로써 이자겸의 난이 종결된다. 이자겸의 난이 종결된 이후, 척준경과 그의 세력은 정권을 장악했으나 인종은 척준경을 꺼려했고 민감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챈 서경 출신의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한다.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파들은, 척준경이 이자겸의 사대정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인종 또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척준경을 제거하고자 했다. 서경파와 인종의 이해관계가 얼추 맞아 떨어졌고, 이들이 합심하며 결국 척준경은 탄핵받아 축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지상을 비롯한 묘청, 백수한 등의 서경세력이 정계에 등장한다.²⁸⁾

본디 서경은 태조가 서경을 북벌의 중심지로 삼은 이후부터 개경 다음가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태조의 유지를 이어받은 고려 국왕들은 서경으로 지속적인 순행에 나섰으며, 몇몇 왕들은 수차례 서경으로의 천도를 계획했다.²⁹⁾ 하지만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천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서경세력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척준경의 축출 과정에서 등장한 서경세력들 역시 이후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세력에 밀려 정치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묘청을 비롯한 서경세력은 인종에게 칭제건원과 함께 서경천도를 권했다. 서경세력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복진정책을 회복하여 금나라를 정벌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고자 했다.³⁰⁾ 그러나 서경세력의 천도운동은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세력의 반발과 인종의 협조가 부족했던 탓에 급진적인 반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부식의 중앙군에 의해 진압된다.

여태까지 상호 연관적으로 나열된 고려 중기의 정치구조는 문벌귀족간의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권강화와 국경안정의 측면, 그리고 개혁을 위해 여진을 정벌했던 윤관과 위에 서술해놓은 정치 사회상을 연관지어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숙종 6년, 숙종은 정치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좌받고 정책 추진력을 얻기 위해 윤관 등을 기용했다.³¹⁾ 윤관은 전형적인 문신이었지만, 무장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기에 숙종의 명을 받아 여진 정벌에 착수한다. 이에 숙종의 신뢰를 받은 친왕적 세력들은 윤관을 중심으로 여진 정벌에 나섰고, 윤관은 또다시 여진 정벌 과정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³²⁾ 즉, 윤관의 세력으로 부각된 자들 대부분은 하위 관료 가문이나 지방 향리 계층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가문의 힘이 아닌 자신의 실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출세하여 가문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공통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여진 정벌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³³⁾ 숙종과 윤관은 이러한 과정을

28) 위의 책, 163~166쪽.

29) 위의 책, 166~169쪽.

30) 위의 책, 197쪽.

31) 박은진, 1998 「尹瓘의 生涯와 정치적 位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쪽.

32) 위의 논문, 33쪽.

통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재기용함으로써 그들을 또다른 친왕 세력으로 만들어 신법 개혁의 선봉에 서게 하고자 한 것이다.

2. 윤관묘를 통해 본 윤관

윤관묘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해 있는 과거 고려의 장군 윤관(?~1111)의 묘이다.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면에 구성을 축조했다는 사실로 유명한 윤관은 숙종 대의 문신으로 고려시대 초기 영토 확장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³⁴⁾ 윤관의 본관은 파평, 자는 동현으로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 윤신달의 손이다.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숙종 때 이부상서와 한림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 때 상당수의 여진이 지금의 함경도에 거주하며 그 횡포가 심각하였는데, 숙종은 곧 윤관을 동북면행영도통으로 삼아 싸우게 하였다. 하지만 토벌에 실패하고 강화만 맺은 채 돌아온 윤관을 숙종은 다시 참지정사판상서형부사로 임명하여 그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³⁵⁾ 윤관은 보병이 주된 고려의 군으로는 기병군인 여진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다고 보았고 별무반을 설치하여 군사를 강화하였다.

윤관은 여진을 평정한 이후 영주, 복주, 길주, 함주와 회령에 성과 비석을 쌓고 이듬해 여진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의주, 통태진, 평용진 세 곳에 성을 더 쌓아서 북계의 9성이라 명하고 남도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³⁶⁾ 하지만 이후 여진의 보복과 동북 9성의 위치성으로 인해 고려 조정은 여진에게 9개의 성들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였다. 평장사 최흥사와 추밀원사 이위등이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숙종의 아량으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로 인해 벼슬을 파면하였다. 이후에 윤관에게 태보라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을 하사하였는데 윤관은 한사코 거절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고 그대로 벼슬을 주었다. 예종 6년에 사망한 윤관에게 문경이란 시호를 내렸고 이후 문숙으로 고쳐졌으며 위패는 예종의 사당과 함께 모셔져 있다.³⁷⁾

윤관시기의 팽창 정책은 초기 고려가 내세운 북진주의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윤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종 시기부터 시작된다. 태조의 북진주의를 이어 받아 성종 10년 당시 여진 세력을 백두산 이북으로 몰아내었다. 이것에 초조함을 느낀 거란이 북송과의 외교문제로 고려와 갈등을 빚었고 서희와 소손녕 사이의 외교적 담판 같이 평화적 교환도 있었으나 문신 강감찬의 귀주대첩 같이 무력 분쟁 또한 있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거란과의 오고가는 힘싸움이 이루어졌고 강화 담판을 맺은 고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북면보다 동북면의 여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함경도 지역이 여진의

33) 위의 논문, 34~3쪽.

34) 위의 논문, 1쪽.

35) 황충상, 1985 「윤관(尹瓘)」 『군사지』 11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7쪽.

36) 위의 책, 33~35쪽.

37) 위의 책, 35~38쪽.

세력권이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여진족들이 거주하였고 고려는 이들의 귀부를 장려하고 있었다. 천리장성을 쌓은 이래로 함경도 지방의 주민정책은 여러 민족의 융화가 아닌 ‘고려민으로의 편입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당연히 이러한 귀부정책은 동북면에 새로 떠오르는 신인강자인 완안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고려와 여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의 내부 정치적 문제와도 결부되어 여진 정벌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미 쇠약해진 거란을 뒤로한 채, 아직은 갈라져있던 여진과 세력다툼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자 하였던 숙종과 예종의 여진 정벌은 대외정세를 정확하게 읽은 결정이었으나, 윤관이 쌓은 동북9성의 반환은 완안부에게 여진을 통일하여 금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성장 발판이 되었고 고려에게는 동아시아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 스스로 걸어서 된 꼴이 되었다.

결국 9성을 반환함으로써 고려는 함경도 지방의 영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초기부터 이어왔던 고구려 고토회복이라는 명분도 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9성 반환 조건으로 여진은 다시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다는 것은 이후 금나라 시기의 그들의 행태를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윤관은 동북9성을 반환한지 2년이 된 1111년에 사망하였는데 아마 9성 반환에 대한 울분과 화로 인해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³⁸⁾

현재 윤관묘는 사적 323호로 지정되어있다. 윤관 묘는 묘의 전체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봉분 아래는 장대석 모양의 호석을 두르고 봉분 주위에는 곡장을 둘렀다. 정면에 상석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묘표가 있다. 단 아래에는 망주석과 장명등, 양편에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석물들은 최근에 새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묘역 아래에는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여충사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0일 제향을 지낸다.

장군 묘역은 조선시대부터 400여년 동안 계속된 산송으로도 유명하다. 윤관 장군은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국가로부터 추앙받던 인물이었으나 묘는 500년이 지난 임진왜란 전후까지 후손들에게조차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1764년(영조 40) 윤관의 구비파편이 발견되었고 영조가 봉분을 새로 조성하여 치제하게 함으로써 윤관의 묘소임을 공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조선 현종 대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1593~1662)의 묘가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 문종의 산송이 시작됐고 영조는 양 문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최근까지 400여년간 산송이 이어져 오다 2007년에야 파평 윤씨 문중에서는 인근에 대토를 내어주고 청송 심씨 문중에서는 묘역을 이장하기로 합의해 한국역사상 최장기 산송은 양 문중이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³⁹⁾

38) 이정신, 2003 「강동 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지』 48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9) 경기일보, “[장덕호의 보물읽기]22. 윤관 장군묘(윤관 장군묘)”, 2012년 8월 2일, 제 0

참고문헌

- 황충상, 1985 『윤관(尹瓘)』 『군사지』 11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박은진, 1998 『尹瓘의 生涯와 정치적 位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병인, 2003 『고려 예종대 정치세력 연구』, 경인문화사
- 김창현, 2008 『윤관과 묘청. 천하를 꿈꾸다.』, 경인문화사
- 박종기, 2008 「정치사의 전개와 고려사회 성격론」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 이정신, 2003 「강동 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지』 48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경기일보, “[장덕호의 보물읽기]22. 윤관 장군묘(尹瓘 將軍墓)”, 2012년 8월 2일

면.

용미리 석불

15 이준희, 15 변지혜

1. 위치

용미리 석불은 통일의 관문이라 불리는 파주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가 통일의 관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실제 파주가 과거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왕실 때에는 파주 용미리가 개성에서 남경(오늘날의 서울)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용미리 석불은 비록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 있지만 파주 지역에서는 최대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또 고려 초기 석불로 관촉사의 은진미륵, 안동의 제비원석불(이천동 석불상) 등과 함께 부처의 힘을 빌어 안정을 꾀하고 더불어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2. 심미적 가치

용미리 석불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 중턱에 거대한 두 부처가 수목에 둘러싸인 모습이다. 마애불 二尊병립상은 약간의 키 차이를 가지면서 정다운 부부처럼 나란히 남쪽 방향으로 서 있다. 두 불상이 나란히 표현되는 경우는 원풍리 마애불상(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의 사례가 있지만 매우 드물게 보는 예이다. 그것도 10m가 넘는 거불로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불신을 거대한 자연석 면을 그대로 살려 저부조의 얇은 돌을 새김하고, 얼굴을 두세 개의 돌을 포개서 환조로 조각하여 올린 마애선조입불상이다. 불상의 크기는 오른쪽 원형의 관모를 쓴 불상이 높고, 불신 또한 바위면의 2/3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불로 조성하였다. 왼편 사각탑형 관모를 쓴 불상은 조금 키가 작고, 좌우 두 불상 모두 대칭적 구조에서 조금 이탈하여 비대칭적 모습을 보인다. 이 마애불은 고려시대 최대의 환조로 만들어진 관촉사석조보살상과 비슷한 도상을 가지는데 손의 자세가 반대이다. 이곳 마애불은 전체적으로 오른손이大衣 사이에 감추어지면서 드러나는 두 손가락은 매우 짧고 투박하면서도 손톱까지 표현하는 세밀함이 있다. 가사는 양쪽 어깨로 걸친 통견방식으로 착의를 하고 있다.



파주용미리마애불입상

왼편의 불상은 사각탑형 관모를 쓴 네모꼴의 얼굴이다. 불신자체는 오른쪽이 크고 앞에선 느낌으로 표현을 했지만 얼굴은 왼쪽 불상이 평면적이면서 크게 표현되어 있다. 긴 눈

40) 신혜선, 2006 「마음으로 찾아가는 우리문화재 ④ 용미리 석불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역사&문화 [History&Culture]』 6(역사문화연구회), 36~39쪽.

매가 수평을 이루며, 얼굴의 두 조각의 접합 부분이 위아래 입술 접합선을 지난다. 뭉툭한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하고, 통견의 법의는 옷매무새가 옆의 불상과 유사하다. 불상은 하반신으로 내려갈수록 자유분방한 선으로 가사자락을 표현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불상을 조성하면서 바위 자체를 인체 그대로 살리면서도 비교적 얼굴의 비례에 유념하여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자연석 바위가 거구의 몸 전체를 살려내었기에 자연스러우며 오른쪽 마애불의 얼굴은 마름모형으로 더 커져 보이며, 왼쪽 마애불은 사각형 얼굴에 눈은 반개하여 내려 보는 듯 하고 턱의 볼륨이 얇고 평면적으로 보인다. 특히 두 얼굴 모두 이목구비가 분명하지만 자비와 사랑이 넘치기보다 무표정하고 원편 사각탑형 관모의 불상은 얇게 다문 입술에서 침울한 느낌마저 느끼게 한다.⁴¹⁾

3. 관련 설화

이미 『삼국유사』에 미륵불 설화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고, 각 지방에는 경주 남산 미륵굴 같은 지명과 미륵불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관련되는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으므로 미륵신앙은 널리 행해진 불교신앙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미륵신앙이 이 땅에 들어와 거부감 없이 성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토착신앙과의 관계에 있다.

미륵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은 암석숭배 신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륵불에게 아들을 비는 신앙은 그 원류가 암석숭배 신앙에 있다. 바위가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는 신앙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돌이 생명을 준다는 믿음은 우리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동부여 금와왕은 바위 밑에서 태어났다. 불임 여성이 선돌, 기자암, 불임바위, 미륵으로 불리는 큰 바위나 성기 모양의 바위에서 주술을 행하는 것은 암석의 정령숭배 사상이다. 미륵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⁴²⁾

암석숭배 신앙과 미륵신앙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여건은 그 소재가 바위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상을 새기는 소재는 대부분 자연석을 활용하는데 파주 용미리 석불은 자연석에 미륵을 새기거나 바위 위에 불두를 조성하여 엮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암석 숭배 신앙과 미륵신앙을 쉽게 결합시키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13대 왕 선종이 후사를 두지 못해 원신공주를 후궁으로 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를 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배가 매우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꿈에서 깬 공주가 이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종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 사정을 알아오게 하였다. 장지산에 다녀온 사람은 “산 아래에 큰

41) 이성도, 2010 「고려시대 마애불의 조형성 연구」 『美術教育論叢』 第24券 3號(한국미술교육학회), 26~27쪽.

42) 김용덕, 2010 「미륵불 신앙의 현장연구」 『한국언어문화』 43(한국언어문화학회), 215~216쪽.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은 “그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궁주에게 태기가 있어 기다리던 왕자 한산후가 탄생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용미리 장지산 미륵불의 조성 내력을 담고 있다. 함께 지어진 사찰과 연계해 볼 때 이 전설은 사찰연기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찰연기담으로서의 ‘용미리석불입상전설’은 왕자의 탄생과 맞물려 祈子의 대상이 되고, 기원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과 연계된 여러 변이형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 석불 앞에서 득남기도를 해 이승만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한 예이다.

참고문헌

- 신혜선, 2006 「마음으로 찾아가는 우리문화재 ④ 용미리 석불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역사&문화 [History&Culture]』 6(역사문화연구회)
- 김용덕, 2010 「미륵불 신앙의 현장연구」 『한국언어문화』 43(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성도, 2010 「고려시대 마애불의 조형성 연구」 『美術教育論叢』 第24卷 3號(한국미술교육학회)

고려 중기 ~ 여말 선조

- **승전포** 32
노방주
-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34
김지후
- **무신정권의 대몽항쟁과 강화 흥릉** 37
양윤모, 이형석
- **삼별초 항쟁비** 41
조하영
- **회암사** 44
조아영
- **승의전** 48
박진영, 김은영

승천포

14 노방주

1. 역사

강화에 승천포라는 이름의 옛 포구가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아 강화로 천도할 때 국왕 고종이 처음 강화에 발을 디딘 곳으로 전해지며, 이후 몽골과 교섭할 때 두 나라 사신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전승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강화방비책의 일환으로 주변 여러 곳에 진보를 설치하였던 곳이다.

고려사에는 “을유일에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에서 쉬고 병술일에 강화 객관에 들었다.”⁴³⁾라는 내용뿐이며, 승천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조선 성종 대에 편찬되었던 동국여지승람에 가서야 기록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그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도 4차례 승천포가 언급된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배를 만드는 공역은 대단한데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절로 썩게 됩니다. 또 昇天浦와 德浦는 물살이 느려서 그래도 뜻대로 배를 부릴 수 있지만 甲津은 물결이 거칠어서 배를 부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⁴⁴⁾이나 “白馬山城은 승천포의 주변에 있고 그 길이 松京으로 통하여 있기 때문에 江都의 요충지입니다. 마땅히 關防을 설치하여 文殊山城과 서로 倚角之勢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將臣으로 하여금 가서 형편을 살펴보게 하소서.”⁴⁵⁾ 등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승천포가 강화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지명의 유래

‘승천’이란 지명은 고려 예종 3년(1108)에 옛 고구려의 貞州인 개풍지역에 새롭게 昇天府를 설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승천부의 치소에서 남쪽으로 15리 되는 지점에 승천포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승천관은 승천포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는 용도로 세운 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승천포라는 이름은 1400년대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승천포라는 이름이 조선 성종 12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야 등장한다는 점과 앞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화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승천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비전승에 의하면 고려왕이 직접 왔다는 의미에서 올라갈 ‘승’에 하늘 ‘천’자를 붙였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43) 『고려사』 고종 임진 19년 7월

44) 『인조실록』 50, 인조 27년 3월 11일 경오 1번째 기사

45) 『영조실록』 52, 영조 16년 9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3. 제포와 승천포

제포관 혹은 풍포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고려 고종 때 강화에 있었던 객관이 승천포 자리에 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고려시대 기록에는 포구를 梯浦·梯皇浦로, 건물은 梯浦宮·梯浦館이라 쓰고 있다. 제포는 고려 고종 43년(1256)에 만든 좌둔전의 기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서경(지금의 평양).개경(지금의 개성).강도(강화)등 세 도읍의 자랑거리를 풍자한 崔滋의 「三都賦」에서는 강화에서 외빈을 맞고 보내던 곳이 楓浦館이라고 적고 있다.

고종 37년(1250) 12월 병진일에 몽골 사신 洪高伊 등 48명이 승천관에 와서 머무르면서 왕이 나와서 영접해야만 들어오겠다고 하자 사흘 뒤인 기미일에 고종이 제포궁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고, 이듬해인 고종 38년(1251) 10월 을사일에 몽골 사신 將困, 홍고이 등 40명이 승천관에 오자 무신일에 고종이 제황포에 나가서 몽골 사신을 영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高宗 39년(1252) 7월 무술일에는 몽골 사신 多可, 阿士 등 37명이 고려 국왕이 육지에 나와서 영접하지 않으면 군사를 출동시키겠다는 밀명을 받고 왔을 때에도 고종은 新安公 王侏을 보내 그를 맞았으며 몽골 사신을 제포관으로 들게 한 뒤에야 만난 일이 있다. 이때 몽골 사신들은 고종이 자기 황제의 명령을 좇지 않았다 하여 연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을 내고 승천관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였던 몽골 사신이 화를 내며 승천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을 오해하면 마치 제포관 옆에 승천관이 있던 것처럼 볼 수 있으나, 몽골 사신이 승천관에 머무르면서 왕이 바다를 건너와 영접해야만 들어가겠다는 다른 기록을 연결시켜 보면 승천관은 개풍에 있고, 제포관이 강화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몽골사신이 승천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사흘 뒤에 왕이 제포에 나가서 맞이했다는 기록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15 김지후

1. 참성단이란

강화 섬 남쪽 끝에 우뚝 솟은 마니산. 가파른 918 계단을 따라 힘겹게 오르면 정상 부근에서 돌로 쌓은 커다란 제단을 만난다. “눈은 천리 밖을 바라보며 몸은 구중 하늘에 있는 듯”하다고⁴⁶⁾ 읊은 李岡(고려 공민왕 때의 인물)의 시가 실감나게 다가온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한국 제일의 生氣處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여기가 바로 단군이 하늘에 제사했다고 전하는 참성단이다.

2. 명칭과 의미

제사시설을 흔히 壇廟라고 한다. 이 가운데 단은 노천의 제단으로 조선시대에 토지와 곡물의 신을 제사하던 사직단이나, 산천, 풍운뇌우, 성황을 함께 모시던 南壇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묘는 祠라고도 하는데, 제사용 건물로 신위는 그 안에서 제사되며, 종묘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에서 모셔지는 신은 자연신이 많으며, 묘에서 제사하는 신에는 인간기원 신이 많다. 따라서 참성단이란 이름은 그것이 노천의 제단인 데서 유래한다. 또한 참성단이 제단의 형태를 취한 것은 자연신의 일종인 천신을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참성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다. 우선 발음상의 혼란이 있는데, 참성단을 첨성단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귀에 익은 경주의 첨성대를 연상한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 분명 잘못이다. 혼란은 한자 표기에도 있는데, 塹城壇, 塹星壇, 參星壇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옛 문헌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를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별 星자가 들어간 표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참호를 뜻하는 ‘참’과 별 ‘성’이 합쳐져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또 參星이란 별이 28수 중에 있지만, 참성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塹城壇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더라도 의미는 통한다. 즉 ‘참호와 성벽 안에 있는 제단’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참성단은 塹城壇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참성이라 했느냐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참성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참성단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 자체를 참성이라 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마니산 일대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겨둘 수 밖에

4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강화도호부

없다. 이밖에 참성단을 醯壇 또는 酢星壇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참성단에서 하늘의 변에게 醯라는 도교식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한 명칭이며, 祭星壇이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壇君臺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단군이 제천하던 臺(흙이나 돌로 높이 쌓은 곳), 즉 檀君祭天臺를 압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 참성단의 의의

참성단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오래된 전거를 가진 단군유적이라는 점이다. 단군관련 유적은 한반도 곳곳에 있다. 이 중에는 평양 崇靈殿, 구월산 三聖祠처럼 후대에 단군을 제사지내던 시설도 있지만, 단군과 직접 관련되는, 단군 당시의 것으로 전하는 유적도 상당수 있다. 예컨대 묘향산에는 단군이 태어났다는 단군굴 등이 있는가 하면, 구월산에는 단군이 승천했다는 단군대가 있고⁴⁷⁾, 강동에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군릉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강화도에도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는 三郎城(=정족산성)이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비전승만 전하는 유적 보다는 문헌적 근거가 있는 유적이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 구비전승은 전승과정에서 변질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문헌이 더 오랜 것일수록 유적의 의미와 가치는 커진다. 그렇다고 할 때 남한은 물론 남북한을 통틀어, 단군유적 가운데 강화도의 참성단과 삼랑성 보다 문헌적 근거가 올라가는 것은 없다. 단군릉 같은 것은 15세기말~ 16세기 초의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하는데 비해, 참성단과 삼랑성은 『고려사』에 이미 단군유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단군을 민족의 시조 내지 민족의 뿌리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단군에서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군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단군에 관한 유적으로서 문헌적 근거가 가장 오랜 것이 참성단과 삼랑성이라 할 때, 이들 유적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는 마땅히 주목되고 부각되어야 한다.

둘째, 자주의식의 표상이란 점이다.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곳이라 한다. 우리 민족의 제천 전통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조선의 정치권력이 하늘에서 기원했다는 단군 신화로 미루어, 제천의 전통은 고조선 시기로 소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군이 제천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

제천의 전통은 고려시대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삼국시대에 비해 중국의 유교식 禮制의 세례를 많이 받은 것이었다. 圜丘壇이란 제단의 이름이나 제사의 절차 등이 바로 그러했다. 그러나 제천의례 중에서도 중국은 동지제천을 중시한 데 비해, 고려에서는 정월의 첫 번째 신일에 거행하는 기곡에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고려의 제천이 중국의 복사판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즉 동지제천이 음양의 교체란 새로운 질서의 시작과 더불어 군주권력

47) 김성환, 2002,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의 갱신이란 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임에 비해, 정월 상신의 기곡은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 의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고려 때까지 이어지던 제천의 전통은 조선시대로 오면서 진통을 겪는다. 태조~세종 대에는 존폐를 반복했으며, 세조 때 일시 부활하는 듯 했지만, 결국 중양의 국가제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것은 유교적 명분론이 빚어낸 결과였다. 유교적 명분론에 의하면 제천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천자만의 독점물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천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하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로써의 제천은 적어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주 의식의 표상이었다. 고구려가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느니, 고려가 황제국이었던 할 수 있는 것도 이들 국가가 제천의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앙에서는 중지되고 말았지만, 지방에서는 최고신 상제 제사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참성단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성단은 조선시대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으며, 민족의식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신정권의 대몽항쟁과 강화 홍릉

15 양윤모, 15 이형석

1. 강화 홍릉

고려의 23대 왕인 고종의 능이다. 1259년에 조성되었으며 원래 3단의 축대로 되어, 맨 아래에 丁字閣⁴⁸⁾, 제2단에 石人⁴⁹⁾, 맨 윗단에 봉분을 배치한 형식이었다. 1919년의 조사 때 圓墳 지름이 4m 정도의 소형이고, 봉토 아랫부분에 돌레돌 3판, 그리고 능 주위에는 난간의 돌조각이 남아 있었다.

능의 네 모퉁이에 石獸⁵⁰⁾를 각 1구씩 세웠고, 좌우와 뒤편 세 곳에 돌담 흔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석물로는 제2단에 석인 두 쌍이 남아 있고, 보수된 난간에서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 童子 돌기둥이 몇 개 있을 뿐 석수는 없어졌다. 최근에 난간은 竹石을 얹어 보수하였고, 또 봉토 基部에 호석을 둘렀으나, 상단 앞면의 축대는 현대식으로 쌓았으며, 曲墻을 친 3면은 비스듬히 莎草를 덮어 마치 私家의 묘처럼 만들어 원형을 손상하였다. 사적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2. 고종과 대몽항쟁

고종은 강종의 맏아들이자 원덕왕후 유씨의 소생이다. 그는 부왕 강종이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안악현에 유배되어있었다. 그런데 희종 7년(1211) 12월 돌연한 사건이 궁궐에서 발생하였다. 희종이 최충헌을 제거하려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었다. 최충헌은 희종을 왕위에서 내쳐 강화도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에 대신하여 강화도에서 불러들인 명종의 아들 오(도)를 즉각 왕위에 올렸다. 그가 바로 강종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213년 8월 강종이 병으로 사망하자 고종은 왕위에 오르게 된다.

고종이 즉위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몽고가 일어나 금에 쫓겨 서쪽으로 도망갔던 거란을 다시 동쪽으로 내몰았다. 이 바람에 금은 변방지역에 밀려든 거란족에 위협받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도 반란⁵¹⁾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금은 고려에 식량 원조를 청했지만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때 뜻밖에도 동쪽으로 밀려오던 거란족이 요동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해왔다.

고려군은 이러한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였으며 거란군은 계속 남하하였다. 고려

48) 왕릉 앞에 지어진 '丁'자형의 제사건물.

49) 능묘 앞에 세우는 사람 형상의 석조물.

50) 궁(宮)·사묘(祠廟)·능묘(陵墓)의 앞에 세워 두는 집승의 석상(石像).

51) 선무포선 만노가 반란을 일으켜 요동을 차지하고 천황을 자칭하며 진을 세웠다. 진은 나중에 동진으로써 연합군의 한축을 구성하게 된다.

는 이에 몽고와 동진, 금 등과 연합하여 거란을 격퇴하기로 결정한다. 연합군은 결국 거란의 항복을 받아냈고 그 후 몽고의 원수 합진은 고려에 강화를 청한다. 고려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몽고와 고려는 형제지국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당시 집권자 최이는 공물을 계속 요구하는 몽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몽고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개성의 나성을 수리하고 의주, 화주, 철관 등지에 성을 쌓았다. 그러던 1225년 정월에 몽고 사신 착고여가 고려에 왔다가 귀국하는 길에 도적들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몽고는 고려가 착고여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고 보복을 선언하였으며 국교가 단절되게 된다.

마침내 1231년 8월 몽고군이 실리타의 지휘 아래 압록강을 건너 내침을 감행해왔다. 이것이 1차 침략이었다. 압록강을 건넌 몽고군은 12월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고려조정은 몽고군 진영에 회안공 왕정을 보내 화의를 추진하였다. 양국 간의 평화를 지속시킬 것을 약속하며 화의조약을 성립시켰으며 몽고군은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역의 40개 성에 다루가치⁵²⁾를 남겨두고 1232년 철수하였다.

몽고군이 일단 철병하자 최이는 그들이 수전에 약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며 몽고와의 전면전에 대비하였다. 또한 서북면과 서경에 남아 있는 몽고 다루가치를 습격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몽고는 1232년 다시 2차 침입을 감행하게 된다. 몽고군은 경상도까지 남하하며 개경환도를 요구하였지만 고려군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싸웠고 12월 수원의 처인성에서 승려 김윤후가 몽고원수 실리타를 사살했고, 몽고군은 이에 당황하여 서둘러 철군하였다.

제3차 침입은 몽고가 1233년과 이듬해 동진과 금을 멸망시킨 후에 있었다. 실리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며 1235년에 침입한 몽고군은 다시금 전국토를 유린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며 곳곳에서 처절한 항전을 계속했다. 몽고는 몽고 내부의 권력암투로 인해 고려의 화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서둘러 철군하게 된다.

4차 침입 때는 몽고왕이 죽었다는 연락이 오자 곧바로 철수하였고 1253년 5차 침입 때는 고종이 몽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승천부로 나와 몽고 사신을 맞이함으로써 다시금 철군하게 된다. 6차 침입 또한 출륙환도를 주장하며 몽고군이 침입해 왔는데 김수강의 뛰어난 언변으로 몽고왕은 고려 국왕의 친조와 출륙환도를 다짐받고 철군을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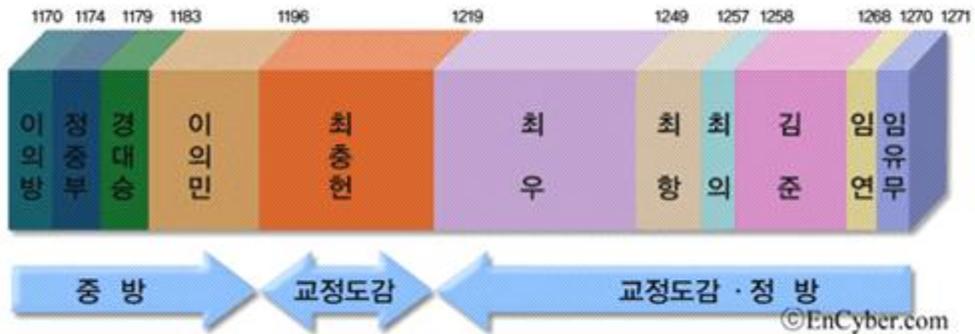
7차 침입 때는 최의가 피살됨으로써 그동안 몽고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최의의 죽음을 몽고에 알리고 출륙환도와 태자의 입조를 약속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어 28년 동안 지속되던 여몽항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고종은 이처럼 재위가간 내내 숭한 전쟁을 겪다가 몽고와 화의조약을 맺은 1259년 6월 강화도에서 6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때가 재위 45년 10개월째로 그는 고려의 모든 왕 중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52) 원나라 총독 등을 호칭하는 관직명

3. 고종대의 최씨 무신정권

희종 7년의 최충헌 암살기도 사건 이후 최충헌은 강종을 세우고 이후 고종이 집권하면서 그의 권력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는 수많은 사병을 거느렸으며 그가 움직일 때는 무장한 위병이 반경 10리를 가득 채웠을 정도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그는 1219년 병으로 들어누웠고 결국 71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최충헌이 죽자 만아들이었던 최이가 교정별감에 올라 권력을 물려받는다. 1219년 그가 교정별감에 오른 후에는 최충헌이 불법으로 빼앗은 전답과 노비들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최충헌이 저장하고 있던 많은 보물들을 고종에게 바쳤다. 그는 인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그는 1225년 사제에 정방을 설치하고 문무백관이 인사행정을 그곳에서 처리하였다. 2년 뒤에는 사제에 서방을 설치하고 뛰어난 유학자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신정권의 정권별 핵심 기구

최이는 이 후 몽고가 침략하자 강화도 천도를 단행하며 정권을 유지하였고 몽고군의 4차 침입 이후 그는 생을 마감하였다.

그에게는 적자가 없고 만종과 만전이라는 두 서자가 있었는데 그는 두 아들을 송광사로 출가시켰다. 출가한 만전과 만종은 무뢰배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곡식과 금전을 약탈했는데 이에 형부상서 박훤이 최이에게 두 아들을 개경으로 소환할 것을 진정한다. 하지만 만전과 만종은 최이에게 박훤이 부자간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최이는 박훤을 유배시키고 만전을 환속시켜 이름을 항이라고 하였다. 그 후 최항은 호부상서 등의 벼슬을 지내며 힘을 형성하였고, 최이가 죽자 권력을 세습하였다.

최항은 몽고와의 출륙한도의 약조를 지키지 않으며 5·6차 침입을 막아냈으며 그의 아들 최의를 후계자로 키운다. 최항이 죽은 후 최이가 교정별감에 오르며 정권을 잡았으나 최의는 너무 젊어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그 바람에 무신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났으며 1258년 4월에 유경, 김인준, 임연 등이 삼별초의 힘을 빌려 최의를 살해하였다. 이로

씨 60년간 지속되던 최씨 무신정권은 종말을 맞게 된다.

삼별초 항쟁비

15 조하영

삼별초 항쟁 비는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얇은 산 아래에 우뚝 솟아 있다. 1993년 6월 1일에 강화군민들이 강화도에서 끝까지 남아 대몽 항쟁을 계속했던 삼별초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이 비석이 세워진 위치는 삼별초가 몽골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운 터 위에 세워졌다. 삼별초는 몽고와의 화친을 거부하며 그 본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 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강화도에서 진도로 떠날 때 출항했던 곳이 바로 삼별초 항쟁 비가 세워진 곳, 외포리라고 한다. 비석의 앞쪽에는 '삼별초 군호국항몽유허비(三別抄軍護國抗蒙遺墟碑)'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비석을 세운 취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1. 삼별초에 대해서

삼별초는 고려 1230경 개경에서 최씨 정권의 최우에 의해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1273년 제주도에 와서 최후를 맞은 특수부대이다. 삼별초란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립 초반에는 도둑을 진압하는 국가 군대의 정예병으로 활동하다가 최씨 정권 집권기의 군사적 기반으로 알려져 있다⁵³⁾. 오랜 시간 삼별초는 본거지를 옮겨 가면서 몽고와의 항쟁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고려 자주 의식의 대표적 예시로 언급되어왔는데, 『고려사』의 기록은 삼별초의 대몽 항쟁 속 자주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2. 삼별초의 성립 과정

원종 11년 5월에 삼별초를 선발하였다. 이전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고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름을 야별초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여러 도에서도 일어남에 미쳐 별초를 나누어 보내어 이들을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가 심히 많은지라 마침내 나누어 좌우로 만들었다. 또 국민으로서 몽고로부터 逃還한 자들을 일부로 일부로 삼아 신의군이라 이름하니 이것이 삼별초가 되었다⁵⁴⁾.

위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 삼별초는 최우가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삼별초의 근본이 야별초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우가 정권을 장악한 후 개경 안에서 활개를 치던 도적을 막기 위해 밤마다 도성 안을 순찰하는 용사를 선발하였다. 이 때 도적은 일반적인 물

53) 오영선, 1995 「무신정권과 사병」 『역사비평』 31(역사비평사), 296~297쪽.

54) 『고려사』 권 81 지 35 병 병제 五軍

건을 훔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삼별초가 최씨 정권의 권력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도적이란 단어는 최씨 정권의 정적 혹은 향촌사회의 저항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⁵⁵⁾. 이 규모가 늘어나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고 신의군이 더해졌는데, 신의군은 몽고로부터 도망친 자들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삼별초가 몽고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별초는 치안 유지와 몽고 침략에 투입된 특수 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중앙정부 저항 세력을 진압하고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데에 주로 동원되었다. 삼별초는 대몽 전쟁기의 정권 유지를 위한 무력적 기반의 중심에 위치했다.

2. 삼별초와 위정자들

權臣들이 권세를 잡으매 爪牙로 삼아 그 녹봉을 두터이 하고 혹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기도 하였다. 또 죄인들의 재물을 籍沒하여 이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권신들이 마음대로 부렸으며 그들은 앞을 다투어 힘을 다하였다. 김준이 최의를 죽이고 임연이 김준을 죽이고 송송례가 임유무를 죽이는 데에 모두 그 힘을 빌렸었다⁵⁶⁾.

위 고려사의 사료는 최씨 정권과 김준, 임연, 임유무 모두 삼별초의 무력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삼별초를 장악하여야 했다. 집권자들이 삼별초에게 사사로운 혜택을 자주 베풀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병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었다. 『고려사』에는 삼별초가 김준, 임연, 임유무를 죽이는 데 힘이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반몽을 주장하던 무신들인데 이들을 제거하는 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몽 항쟁을 끝까지 주장했다는 삼별초의 명성을 무색하게 한다.

3. 삼별초와 대몽 항쟁

정미에 추도사 김방경이 보고하기를, “진도의 적이 사람을 시켜 혼도에게 아뢰기를 은밀히 의론한 일이 있으니 청컨대 官人은 잠깐 小島에 와서 임하라 하니 혼도가 말하기를, ‘나는 帝命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감히 들어 가리오’라고 하므로 적이 또 酒肴를 갖추어 와서 먹이기를 청하거늘 이에 허락하였다.” 라고 하였다. 혼도가 帝에게 아뢰기를, “반신 배중손이 험고함을 믿고 항복하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왕국창과 더불어 길을 나누어 추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帝가 이를 청종하였다⁵⁷⁾.

55) 신안식, 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학회』 제 13집(명지사론), 153쪽.

56) 『고려사』권 81 지 25 병 병제 五軍

57) 『고려사』세가 27 원종 12년 4월

위 기록에는 ‘은밀히 의론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협상을 뜻하며 보통 알려진 삼별초의 대몽 항쟁과 어긋나는 모습이다. 삼별초 측에서 혼도를 진도로 초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는 점으로 보아 삼별초가 대몽 항쟁만을 위한 순수한 자주의식에 의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삼별초의 의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 정권의 획득과 유지, 반대파의 제거에 동원되면서 사병의 성격을 갖게 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권력 유지를 위해서든, 자주 의식 때문이든)삼별초가 몽고와의 화친을 40여년 뒤로 미룬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만약 삼별초의 항쟁이 없었다면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 삼별초가 저항하는 과정 없이 곧 바로 몽골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또한 삼별초의 항쟁이 없었다면 몽골의 일본원정은 훨씬 더 빨리 시도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⁵⁸⁾. 삼별초 항쟁은 비단 고려의 역사뿐만 아니라 몽골과 일본의 역사에 까지 도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삼별초라는 단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삼별초의 난처럼 대몽 항쟁만을 몽고의 침입에 대응한 정당한 자세로 보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고려 왕실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타당한 결론이 아니다. 어떤 일이 고려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이었는가에 대해 당시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오영선, 1995 「무신정권과 사병」 『역사비평』 31(역사비평사)
- 신안식, 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학회』 제 13집(명지사론)
- 윤용혁, 2014 「삼별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변론」 『삼별초-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 윤용혁, 2015 「강화, 진도 삼별초의 대몽항쟁 : 삼별초 44년, 강화에서 향파두리까지」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최지은, 2009 「『고려사』와 교과서 서술 비교분석 : 묘청의 난과 삼별초의 난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 윤용혁, 2014 「삼별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변론」 『삼별초-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회암사

15 조아영

檜巖寺는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산 14-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회암사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선·교 양종을 통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찰이었다. 현재 사적 제128호이다.⁵⁹⁾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고려시대에 불교를 중흥시켰던 제3대 사찰 중 하나였으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자의 난 이후 왕위에 물러나 머물렀던 사찰이기도 하며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 수도한 절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가 주지로 있었으며 그 흔적으로 회암사무학대사홍용탑(보물 제388호)과 무학대사비가 무학대사묘비로서 자리하고 있다.



회암사지 전경



회암사지 추정도

지금까지 회암사의 중건 문제나 寺址의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그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헌이 없어 이렇다 할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⁶⁰⁾ 고려 충숙왕 15년(1328) 인도에서 고려에 들어와 불법을 전한 지공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절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⁶¹⁾『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명종 4년(1174)에 금나라

사신이 회암사를 들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14세기 고려시대의 기록인 태고원증국사 보우의 비에서도 회암사라는 이름이 확인된다. 이로써 늦어도 12세기 중엽 이전에는 회암사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공화상은 회암사가 대사찰로 번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회암사가 자리 잡은 곳의 지형이 자신의 출신 사원인 인도의 나란타사와 같아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 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제자 나옹화상이 왕실의 후원 하에 회암사를 중창하였다.⁶²⁾ 나옹은 고려 말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들의 압력과 방해에도 회암사의 중

59) 전국역사교사모임, 2003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전환한 상징 양주 회암사』, 전국역사교사모임, 36쪽.

60) 김철웅, 1997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0권(단국사학회), 169쪽.

61) 경기도박물관, 2003 『물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12쪽.

창을 이루어냈다.⁶³⁾ 회암사터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순조 28년(1828)에 창건된 회암사가 있으며 그 동편 언덕에 지공대사와 나옹대사의 浮屠(각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제50호)와 부도비와 위에서 이야기한 무학대사의 부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창을 거듭하며 절의 규모가 확대되어 국가와 왕실의 부흥과 안녕을 기원하는 願刹로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린 대사찰이 되었다.⁶⁴⁾ 조선이 송유역불정책을 추구함에도 이를 피해가며 번창했으나 문정왕후의 후원을 끝으로 사림이 정권을 장악을 한 이후 점차 쇠망의 길을 걸었다. 이 후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텅 빈 터만 남아있다.



지공화상 부도와 부도비 전경

회암사지에는 회암사지부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와 지공·나옹·무학의 부도 및 석등뿐만 아니라 나옹을 추모하여 세워진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무학대사탑 앞의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 등의 문화재들이 남겨져 있다.



나옹선사 부도와 석등

회암사지부도탑은 처안과 보우의 설이 있으며 최근에는 승탑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사리탑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⁶⁵⁾ 회암사에는 공민왕 때 왕사로 우왕 때 국사로 봉해지기도 했던 태고 보우가 출가를 했으며 고려의 불법을 중흥시킨 지공과 나옹,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역할 한 무학의 흔적이 여러 문헌기록과 부도 등으로 남아있다. ⁶⁶⁾회암사는 이렇듯 도력과 시문회에 뛰어난 고승이 많이 거쳐 갔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웅장했다. 회암사는 고려말에 건물이 262칸이었고, 국내에서 가장 화려하였다고 한다. 고려말과 조선전기에는 사원전과 향거승뿐 아니라 건물로도 다른 사원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당시 회암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 말 유학자 이색이 자신의 시문집인 목은집의 『천

62) 위의 책, 12쪽.

63) 박상일, 2002, 『부활하는 조선 최대의 국찰 회암사』, 경기문화재단, 20쪽.

64)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37쪽.

65)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77쪽.

66) 허홍식, 2003 『한국불교사에서 회암사의 중요성과 국제적 위상』 『묻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195~196쪽.

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⁶⁷⁾ 회암사의 웅장한 규모와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과거에 회암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회암사에서 일반 사찰의 가람배치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웅전에 해당하는 보광전의 뒤인 8단지 중앙에는 정청과 동방장·서방장이 위치한다. 이 건물들은 드러난 건물의 모양이 마루방 시설의 모양으로 되어있고 양 옆으로 온돌시설을 갖춘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창덕궁과 같은 궁궐이나 옛 관아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⁶⁸⁾



무학대사 부도와 쌍사자 석등



회암사터 부도

또한 회암사지에서는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정청을 중심으로 동·서방장 건물지 주변에서는 많은 청기와편이 발견되었다. 청기와는 제작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복궁과 같은 궁궐의 건축에만 사용되어왔다. 이는 8단지 건물이 왕실과 밀접한 ‘정치적 공간’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⁶⁹⁾ 왕실이나 관아의 건물에서만 쓰이는 吐首와 雜像과 같은 지붕 장식물들과 봉황·용 문양이 새겨진 기와들 또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왕실용 자기를 제작했던 경기도 광주 중앙 관요의上品 백자편들이 상당량 출토된 것은 회암사의 높은 寺格과 함께 조선 왕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⁷⁰⁾

회암사터는 층층이 장대석 단을 이루어 남북 축을 따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8단을 이루었고 각 단지마다 평지를 두어 건물을 세웠던 유구들이 남아있다. 이 유구들은 이색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 중요성을 갖고 있다. 1단지 앞에 일부 훼손된 당간지주가 놓이고 가람 동북쪽에는 익명의 부도탑(회암사터 부도탑)이 세워져있다. 이 옛터의 북쪽 떨어진 곳에 지공, 나옹, 무학 등 저명한 스님들의 부도와 탑비가 지정문화재로 보존되어 있고 그 근처에 후대에 새롭게 건축한 회암사가 있다. 이 절의 서쪽 떨어진 곳에 선각왕사비가 있는데 1997년 화재로 비각이 倒塌되어 비석은 부서졌으나 지금은 수리되어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⁷¹⁾

67)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12쪽.

68) 박상일, 앞의 책, 21쪽.

69) 위의 책, 23~25쪽.

70)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57쪽.

참고 문헌

- 김철웅, 1997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0권(단국사학회)
- 박상일, 2002 『부활하는 조선 최대의 국찰 회암사』, 경기문화재단
- 장경호, 2003 「발굴을 통해 본 회암사의 위상」,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3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전환한 상징 양주 회암사」. 전국역사교사모임, 2003.
- 허홍식, 2003 「한국불교사에서 회암사의 중요성과 국제적 위상」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71) 장경호, 2003 「발굴을 통해 본 회암사의 위상」,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163쪽.

송의전

06 박진영, 15 김은영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崇義殿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일곱 왕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 지내던 사당이였다. 구전에 의하면 태조 李成桂는 왕위에 등극하자 고려왕조의 종묘사직을 없앨 생각으로 고려왕의 위패를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웠다고 한다. 하지만 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하에서 움직이지 않아 왕씨 자손이 남몰래 위패를 거두어 이곳에 묘를 짓고 이를 봉하였다고 한다. 후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는 태조 6년(1397)에 연천군 미산면에 고려 태조 王建의 묘전을 세웠고, 정종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일곱 왕을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이후 문종 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관리를 위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고려의 충신 정몽주 선생 외 열다섯 분을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⁷²⁾

송의전은 고려 시기의 왕들과 공신들을 제사지내도록 한 사당인데, 고려와 왕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초기에 지어졌다는 것이 특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특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신왕조 건국의 반대 세력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⁷³⁾ 즉, 전대 왕조에 대한 제사는 단순히 유교적 의미에서의 제사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는 건국 당시 天命에 의해서만 帝王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어 평화적 왕조교체라고 할 만한 역성혁명을 표방하고 있었다.⁷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반발을 줄이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고려 왕실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 초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王氏의 후손인 王瑀에게 畿内の 麻田郡을 주고, 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와 동복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⁷⁵⁾

라고 하였다. 이처럼 왕우가 제사를 맡게 된 것은 고려왕조에서 조선으로 정치적인 정통성이 넘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통성 계승은 정치적인 상징성뿐 아니라 정세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72) 한국문화재청, 1999 『文化財大觀 : 史蹟篇. 下.』, 대전 문화재청, 272쪽.

73) 김인호, 2005 「조선전기 송의전의 설치와 역사인식」, 『史學研究』 제78호(한국사학회), 111~113쪽.

74) 한정수, 2013 「조선 초기 송의전(崇義殿)설치와 사위향사(四位享祀) -16위공신종사(功臣從祀)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67권(조선시대사학회), 5~9쪽.

75) 『太祖實錄』, 1392(태조 원년 7월), 정미 3번째 기사

다. 고려의 끝과 조선의 시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려의 끝은 매우 혼란스럽다. 고려 후기는 원의 반복된 침입,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 정몽주와 이방원의 갈등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⁷⁶⁾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성계는 고려왕조를 은나라, 새로운 조선왕조를 주나라에 빗대어 유교에서 망한 왕조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유교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계승권도 주장하면서 급변하는 정세도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전군 답동리에 태조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송의전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의도가 숨어있다. 사묘 건축은 많은 사람이 모여 제사지내기 위한 건축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송의전은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위치해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고려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 정통성을 계승하되,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해 고려왕조를 추모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좁고 접근성이 낮은 위치에 송의전을 건설했다는 것 자체가 송의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저 여론을 달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송의전의 한계성을 드러낸다.⁷⁷⁾

그러나 송의전이 위와 같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다. 태조 이후인 정종에 이르러서는 마전현에 사당을 세울 것을 명하고 고려 태조 이외에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충경왕⁷⁸⁾, 충렬왕, 공민왕도 같이 제사지냈다.⁷⁹⁾ 그리하여 태조를 비롯한 일곱 왕들이 태조묘의 제사 대상이 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태종 6년(1406) 제사 대상인 고려 국왕 8명의 능에 대해 수호인을 지정하여 이들 국왕 제사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세종 대에 이르러 왕우가 사망한 이후에는 제사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마전현의 지방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구를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종은 문종 2년(1452)에 왕씨의 후사가 봉사하는 조건을 의논하였다. 『문종실록』에 따르면 의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王牛知가 항시 마전현에 거주하면서 왕씨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장자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도록 하고, 장자가 혹시 현명하지 못하면 중자를 골라서 이를 계승하도록 하소서.
1. 왕우지가 경작하는 전지는 祠宇의 가까운 곳에 그 비옥한 토지 10결을 골라서 주고, 본읍과 이웃 고을의 闕田으로써 本主에게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76) 김보광, 2014 「사람이 아닌 정책으로 혼란한 고려를 바라보기」 『한국중세사연구』 38호(한국중세사학회), 497~498쪽.

77) 박정해, 2013 「송의전 입지의 풍수환경과 해석」 『Comparative Korean Studies』 21권1호(국제비교한국학회), 173~197쪽.

78) 충경왕(忠敬王) : 원종(元宗)

79) 『定宗實錄』, 1399(정종 1년 4월), 정묘 3번째 기사

1. 왕우지에 한해서 살림살이를 부유 충실하도록 하고, 농우·농기·농량을 해당 관사에 명하여 갖추어 주도록 하소서.
1. 왕승의 사손에게는 무후한 사람의 노비 중에서 도관사에 명하여 건장한 노비 50명을 골라내어 주도록 하고, 예조에 명하여 가풍이 있는 良家의 여자를 골라서 관청에서 資粧을 주어 시집보내도록 하소서.
1. 왕우지가 거주하는 집은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적당히 지어서 주도록 하소서.
1. 마전현은 이미 선대 사위의 있는 곳의 되었으니 군으로 승격시키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임명해 보내어 犧牲과 廟宇를 수리하는 등류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또 경의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교관을 두어 왕씨의 봉사인과 중자들을 교훈시켜 그들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금하도록 하소서.
1. 잡인을 출입시키고 交結시키는 등류의 禁防은 뒤따라 布置하고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고찰하도록 하소서.

문종은 의논한 내용을 따라 예조에 명하여 법을 제정하게 하였다.⁸⁰⁾

이와 같이 왕씨 후손에게 제사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왕우지에게 제사를 맡기고 제사를 위한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송의전’이란 명칭은 이후 단종 즉위년인 1452년 정해졌으며 왕우지는 이름을 임순례로 바꾸고 조선의 정식 관료로 등재되었다.



세조는 송의전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지녔으나 송의전부사였던 임순례가 사망한 이후에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

지만 송의전에 대한 규정은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들어가게 되어 관직체계가 분명하게 갖추어지게 된다. 이후 임순례의 아들이 송의전의 관리를 맡아 보았으나 그의 사망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관료가 파견되었고 그로 인해 송의전 제사와 관리는 과거보다 소홀하게 되었다.

중종 대에 이르러 송의전은 경제적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으며 중종 이후에는 송의전 제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왕씨 후손에 의한 제사는 선조 22년(1589)년 다시 재개되었으나 이 또한 임진왜란 발발로 인하여 송의전이 파괴되면서 제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후 송의전 제사에 대한 국왕의 관심은 영조 때에 부각되었다. 영조는 중앙 관료를 송의전에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송의전 관료에 왕씨 임용과 승진은 정조대 잠깐 폐지되었다가 다시 복구 되었으나 고종 대에 이르러 송의전 관료를 따로 두는 것은 결국

80) 『文宗實錄』, 1452(문종 2년 3월), 신해 2번째 기사



폐지되었으며 승의전에 대한 특별 우대는 철 폐되었고 과거 승의전이 누리왔던 우월한 지위는 상실되어 다른 시조묘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⁸¹⁾

참고자료

- 한국문화재청, 1999 『文化財大觀 : 史蹟篇. 下.』, 대전 문화재청
- 김인호, 2005 「조선전기 승의전의 설치와 역사인식」, 『史學研究』 제78호(한국사학회)
- 박정해, 2013 「승의전 입지의 풍수환경과 해석」 『Comparative Korean Studies』 21권 1호(국제비교한국학회)
- 한정수, 2013 「조선 초기 승의전(崇義殿)설치와 사위향사(四位享祀) -16位공신종사(功臣從祀)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67권(조선시대사학회)
- 김보광, 2014 「사람이 아닌 정책으로 혼란한 고려를 바라보기」 『한국중세사연구』 38, 한국중세사학회
- 김인호, 2015 「조선시대 승의전과 제사 방식」, 『역사와 실학』 제58호(역사실학회)

81) 김인호, 2015 「조선시대 승의전과 제사 방식」 『역사와 실학』 제58호(역사실학회), 123~150쪽.

조선 시기

• 자운서원 김철은, 류재상	54
• 율곡 이이 이창민	55
• 서원 정수현	58
• 전등사 김한이	61
• 정족산 사고 김현진	63
• 연산군의 정치 - 무오사화 류예원	65
• 연산군의 정치 - 갑자사화와 중종반정 원윤진	68
• 연산군 유배지 박경준	71
• 이권장 생가 박현재	73
• 교동 향교 서희원	76

자운서원

10 김철은, 10 류재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는 紫雲書院은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된 곳이다. 더불어 이곳은 그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주 자운산 자락에 등을 대고 멀리 임진각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명당의 지세를 취하고 있는 자운서원은 1650년(효종 원년) ‘자운서원’이라는 효종의 친필 현판이 내려짐으로써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 입구에 들어 왼편으로 방향을 잡으면 야트막한 구릉지대에 우뚝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율곡 선생의 神道碑이다. 이 비는 율곡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율곡 사후 47년이 되는 인조 9년(1631) 4월에 세운 것으로 李恒福이 짓고, 신익성이 글씨를 썼다. 2m가 넘는 커다란 비는 비각에 잘 보관되어 있지만 몸체에는 드문드문 총알 자국이 보인다. 필경 한국전쟁의 상처일 것이다.

신도비를 지나 길을 오르면 이내 자운서원 廟庭碑가 나타나고 서원의 입구에 이르게 된다. 율곡의 후학인 우암 宋時烈이 글을 짓고 당대 명필 김수증이 예서체로 써서 세운 화강석 비에는 율곡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서원의 건립 내역을 적어 놓았다. 묘정비를 지나 자운서원의 대문 격인 자운문을 들어서면 위패를 모신 사당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당 안쪽에는 이이의 영정을 중심으로 좌우에 김장생과 박세체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82)

서원의 경내에는 팔작지붕으로 된 6칸짜리 사우와 신문, 동서 협문 등이 있으며, 담장 밖에는 묘정비가 세워져 있다. 서원 오른쪽 언덕으로는 이율곡 선생과 부친 이원수, 모친 신사임당의 묘와 자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서원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 공원 안에는 율곡의 유품을 모아 놓은 기념관과 신도비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율곡선생의 뜻과 학문을 기리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한 율곡교육원이 서원에 인접해 있다. 83)

82) 김상철, 2008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얼이 깃든 곳 자운서원」 『美術世界』 285호(美術世界), 89~90쪽.

83) 이준, 1998 「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폭압 없는 상생의 대동사회 건설을 외친 대성리학자 (이율곡 선생을 배향한 파주 자운서원)」 『재정포럼』 28권(한국조세재정연구원), 66쪽.

율곡 이이

15 이창민

1. 이이의 생애

이이(1536년, 중종 31년 ~ 1584년, 선조 17년)의 본관은 德水, 자는 叔獻, 호는 율곡, 石潭 등이 있다. 이이는 그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부친 이원수와 모친 사임당 신 씨 사이에 태어났으며, 6살 때부터 본가인 파주 율곡리에서 자랐다. 또 생원과 초시, 복시, 진사과 초시, 복시, 대과 초시, 복시, 전시, 별과 초시 등 과거에 9번이나 합격한 수재이다. 이이는 원칙에 충실해 잔존해 있는 구체제의 요소를 척결하자는 동인들과 달리 그동안 피폐화된 기층사회의 복구에 힘쓰자는 서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를 서인으로 自定하였다.⁸⁴⁾ 사간원 대사간·사헌부 대사헌·호조판서와 같은 요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이이는 일관성 있게 사회 지도 계층에게 각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는 『동호문답』에서 왕에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주장을 편다.⁸⁵⁾ 그 이후에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임금에게 제왕 지침서인 『성학집요』와 같은 책을 임금에게 바치기도 한다. 이렇듯 그는 자신이 새롭게 해석한 朱熹의 性理學을 토대로 사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 그러나 20대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항상 과로하던 그는 49세의 이른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만다. 이이는 파주 자운산의 선영에 묻혔으며, 사후에 文成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2. 이이의 학문

이이의 문성공이라는 시호는 그가 얼마나 학문적인 측면에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율곡이 성리학에 있어서 조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선의 국학은 유학이며, 조선 유학의 대표격인 인물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황과 이이가 추구하는 성리학의 계통은 완전히 그 방향을 달리한다. 이 중 이이가 추구하는 방향은 理氣一元論인데, 이 이기일원론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의 학설과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며 주희를 완벽히 계승한 이황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우주만물의 근원을 기에 두고 모든 현상들을 이기의

84) 변태섭, 1986 『韓國史通論』, 삼영사, 311쪽.

85) 김광석, 1998 「栗谷 李珥의 <東湖問答>研究」 충남대학교 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7~20쪽.

변화와 운동으로 보는 입장으로, 여기서 이는 실제로 드러나기보다는 기를 움직이는 법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⁸⁶⁾

이이의 독특한 이기론에 대한 그의 생각은 理氣之妙, 理通氣局, 氣發理乘라는 세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⁸⁷⁾ 이기지묘는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와 기가 조화롭게 합쳐진 묘합체라는 내용이다. 이통기국은 앞서 말했던 이기일원론의 내용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 만물의 보편원리이고, 이것이 기로 특수하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기발이승은 이이가 이황의 理氣互發설에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이와 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일어나고 이가 탐으로써 만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본질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운동을 중요시하는 이이의 학문적 성격은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발현하게 된다.

3. 이이와 경장

이이는 위대한 학자인 한편,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른 정치인이자 관료이기도 했다. 이이는 호조와 예조, 이조 등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부패한 관리들이나 승려들에게 비판을 가했다. 또한 궁전 내의 허례허식과 관리들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궁내 대신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다.⁸⁸⁾ 그러나 이이는 본인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3사와 6조의 높은 자리로 영전할 수 있었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도 실용적인 성격을 보였다. 특히 대사간과 이조판서로 있으며 조세제도의 개혁과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사창의 실시를 통한 빈민의 구제 등에 대해서 많은 상소를 올렸다.

나아가 이이는 병조판서에 오른 이후에 군제의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조선의 군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다만, 십만양병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이이가 과연 십만이나 되는 군사를 조선에게 기르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4. 이이와 서원

이이가 이렇게 일관된 신념을 토대로 학자와 경세가로서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서원이 있다. 그는 학문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서원에서 갈고 닦았다.⁸⁹⁾ 이 때 서원에서 양성한 후학들은 정치에 있어서 동인

86) 변태섭, 위의 책, 308쪽.

87) 유성순, 1997 「栗谷 李珥의 理氣論 研究」 『울곡학보』 5호(울곡연구원), 436~448쪽.

88) 백완기, 2005 「한국사학에 바란다 - 열린 마음으로 6 울곡으로부터 교훈을」 『한국사시민강좌』 제37집

89) 송병관, 1985 「退溪와 栗谷의 教育思想 比較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53~54쪽.

에게 압도적으로 앞서며 조선시대 후기 붕당 정치사를 주도하게 된다.

이이의 후학들은 이이의 학문과 정치에 대한 사상을 크게 떠받들며, 畿湖學派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 기호학파는 당시 이이의 제자들이 세력을 떨치던 경기와 충청, 해서(황해도) 지방에 넓게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또 이이는 파주의 자운서원, 강릉의 송담서원, 풍덕의 구암서원, 황주의 백록동서원 등 전국 20여 개 서원에 성현으로써 배향되었다.

서원

15 정수현

1. 서원의 발생 배경

성리학적 유교문화의 실천 주체인 사대부 계층이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이후, 조선시대의 유교는 불교를 대신하여 민중의 생활을 이끌었으며 모든 문화양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듯 유교사상이 깊숙이 자리한 조선시대에는 유학교육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 유학적 학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서원이라는 명칭은 당나라 때 궁중에 설치되어 서적을



도산서원

편찬하고 보관하던 집현전 서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 실학자 유형원은 서원의 발생을 이전의 국가 교육이 잘못된 데에서 찾았다. 즉 성균관이나 향교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명예나 이익만을 다투자 뜻있는 선비들이 그 대안을 찾으려고 만든 게 서원으로, 선비들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학문을 닦고 후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서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16세기에 중앙정치에 진출한 사림의 선비들이 훈구파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서원이 생겨났다고 보기도 한다. 사림파들은 성리학의 이상을 정치에 실현시키려 했지만 현실 정치에 막혀 사화를 겪으면서 낙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이때 지방에 만든 것이 서원으로 그들은 서원에서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재기를 노리면서 은둔하기도 했다.⁹⁰⁾ 이러한 배경으로 생겨난 서원은, 한마디로 조선시대 중기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민간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서원의 설립과 변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모두 갖춘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다. 백운동 서원은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주세붕이 세운 서원으로, 사당 옆에 유생들을 위한 강학 공간을 마련하였다. 백운동 서원은 이후 풍기 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노력으로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으로 개칭되었다.

서원에 대한 사액 조치로 서적 배급, 토지 및 노비의 지급, 면세·면역 등의 특혜가 주어지자 지방 사족들은 서원 건립에 적극 참여, 전국 각지에서 서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

90) 권성진, 2002 「조선시대 서원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 Vol. 21(서라벌대학), 209~224쪽.

다. 점차 서원은 학문 연마보다는 당파나 문중 관련 인물을 제향한 사당의 특성을 띠며 재지 사족의 정치적 기반 확대에 활용되었고, 향촌의 이익 대변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때문에 고종 8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폐지되었다.

3. 서원의 건축적 특성

서원의 건립 위치는 선현의 연고지가 주를 이루었으며 도산서원처럼 주향자 자신이 생존 때 세운 서당이 발전되어 서원으로 자리하기도 한다. 또한 성균관이나 향교와는 달리 은둔적 특성이 있어 행정 중심지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주로 설립되었다. 서원의 건축 유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초기 서원들은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는 중심축이라든가 좌우대칭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임의로 건물을 배치하여 무질서하게까지 보인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복원된 서원들은 전형적인 배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서원의 구조는 크게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으로 나뉘지는데, 전성기의 대부분의 서원들은 앞쪽에 강학 공간을, 뒤쪽에 제향 공간을 마련하는 전학후묘의 배치기법을 따랐다.

4.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1541년(중종 36)에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다음 해 이곳 출신 성리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하고 백운동서원이라 이름 붙였다. 백운동이란 이름은 송의 주희가 강학한 백록동서원에서 따온 것으로, 그 후 이황이 조정에 사액을 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명칭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소수서원은 위와 같이 서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기록인 원지도 남아 있지 않고 서책들도 대부분 흩어져 없어진 상태이다. 단지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소수 서원에는 당시 관학이 피폐할 때 4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다고 한다. 소수서원이 배출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이황의 제자들이거나 이황의 학맥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황을 배향한 도산서원 등의 성세에 밀려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며 동시에 최초의 사액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입지와 사상적 영향은 점차 쇠퇴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⁹¹⁾

5.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동에 위치한 서원으로, 우리나라 서원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원이다. 때때로 안동 근방이나 타지에서 오는 답사객들이 머무르기도 하고, 유유히 흐르는 낙

91) 이해영, 2000 「소수서원」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1(예문서원), 11~36쪽.

동강 물줄기와 수려하면서도 한적한 풍광에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병산서원의 구조는 강학하는 공간이 전방에 있고 사당이 후방에 있는 전학후묘의 형태이다. 사당인 존덕사에는 유성룡을 제향하고 있다. 제향이란 유현으로 추앙하는 인물을 사당에 모시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려서 그 덕을 기리는 행사이다.⁹²⁾



병산서원

92)유권중, 2000 「병산서원」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1(예문서원), 141~164쪽.

전등사

15 김한이

1. 전등사의 창건과 그 이후

전등사는 본래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 화상이 창건하여 '진종사'라 이름을 붙이었다. 이후 고려 제 27·28·30대 왕인 충숙왕·충혜왕·충정왕 대에 수축하였다.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고려 충렬왕 대이며, 당시 충렬왕의 비인 정화공주가 진종사에 옥등을 시주한 데에서 유래하였다.⁹³⁾ 다만 381년의 강화도 지역은 아직 백제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때이므로 아도 화상의 창건설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존재한다. 고구려가 강화도를 치하에 두게 되는 것은 장수왕 63년인 475년의 일이며, 설사 백제 아래에서 지어졌다고 본다고 해도 백제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파된 것은 384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고려 고종과 원종 시대에 해당 지역에 가결을 짓고 대불정오성도량을 베풀 가사를 적은 다음, 원종 7년인 1266년 사승이 절을 중건하였다는 설을 전등사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한다.⁹⁴⁾ 또한 고려 왕실의 원찰이었던 만큼 왕실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傳燈寺事蹟記略』에 따르면 충숙왕 6년(1337)과 충혜왕 2년(1341)에 중수되었다고 전해진다.⁹⁵⁾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 중 한 곳인 정족산사고를 관리하는 사찰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 본래 강화도 마니산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인 전주 사고본이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6년(1603)부터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3부를 인쇄하고 이 인쇄본들을 각각 강화도 마니산, 봉화 태백산, 영변 묘향산, 그리고 평창 오대산과 춘추관에 1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마니산 사고에 본래 보장되어 있던 실록의 원본이 정족산사고인 장사각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 조선 조정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특히 숙종 39년(1713)에 훗날의 영조가 전등사에 친림하여 편액을 친필 휘호하여 남기는 등 국찰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경기 서부 일대의 사찰을 관장하는 수사찰이 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찰령의 제정을 통해 강화, 김포, 파주, 장단, 개풍 등의 5개 군 내의 사찰을 거느리는 대본산이 된 바 있다.⁹⁶⁾

전등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의 전력이 강화도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므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선조 38년(1603)과 광해군 6년(1614) 두 차례의 화재로 인해 전각이 소실되며 폐사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志敬이 재건을 시작하여 광해군 13년(1621) 대웅전 등을 중건하였고, 1623년 목조삼세불좌상과 1627년 목조업

93) 강욱, 2008 「문화기행: 유구한 역사의 고장 강화」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212쪽.

94) 최완수, 1994, 『명찰순례 1』, 대원사, 48~50쪽.

95) 위의 책, 54~55쪽.

96) 위의 책, 56쪽.

경대를 제작하였다. 이후 병자호란을 거치며 군사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 강화도의 지위가 재조명 되면서 전등사도 함께 주목받게 되었다. 97)

2. 전등사의 건축물

전등사의 건축물로는 보물 제178호인 대웅보전 건물과 보물 제179호 약사전 건물이 유명하다. 대웅보전 건물은 광해군 13년(1671)에 지어지고 철종 6년(1855)에 중수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으로, 규모는 작지만 장식 등은 정교해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대웅보전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불단과 천장의 조각들 역시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하다.



특히 대웅보전의 지붕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 장식이 유명한데, 나신의 여인이 네 귀퉁이의 추녀 밑 보머리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편수의 사랑을 배반하고 돈을 가지고 달아난 주모의 벌받는 모습이라는 설이 있다. 혹은 원나라 공주의 투기와 탐욕에 대한 고려 백성의 성난 민심이 그렇게 윤색되어 전해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약사전 건물은 대웅보전과 거의 비슷한 건축 양식을 보인다. 건물 내에는 고려 말기 양식의 석조약사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⁹⁸⁾

97) 최선일, 2013 「강화 전등사 木造地藏菩薩坐像과 조각승 守衍」 『인천학연구』 18(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7~208쪽.

98) 최완수, 앞의 책, 59~60쪽.

정족산 사고

15 김현진

1. 실록과 사고

실록이란 역대 제왕의 사적을 편년체로 엮은 것으로 이것은 당·송대 이래 크게 유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사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임금이 승하한 후 그때의 기록을 편찬하여 실록으로 편찬하였다. 우리나라 실록은 고려시대의 『칠대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은 현존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조선의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 말년까지의 472년간의 역사를 25대 군왕단위로 엮은 『조선왕조실록』이 보존되어 왔다. 『조선왕조실록』은 중앙에 춘추관, 지방에는 충주, 성주, 전주 등의 네 곳에 분산되어 보관하였으며 이 네 곳의 실록 보관 장소를 4대 사고라 한다.

불행히도 선조 25년 임진왜란때 춘추관, 충주, 성주의 사고본은 소실되고, 전주사고본만 남게 되었다. 전란을 면한 전주사고는 이후 강화도에서 선조 35년부터 재인하기 시작하여 선조 39년에 완성하여 5대사고를 만들었다. 춘추관에는 신인본을, 오대산사고에는 교정본을, 태백산사고에는 신인본을, 마니산사고에는 전주본의 원본을, 묘향산사고에는 신인본을 두어 관리하였다. 그 후 인조 2년의 이괄의 난 때에 춘추관 사고는 소실되고, 마니산 사고는 현종 원년에 정족산사고로 옮겼다. 이 외에도 묘향산사고는 적성산 사고로, 오대산사고는 동경제국대학에서 관동지진으로 소실된 역사가 있다.⁹⁹⁾

2. 사고본의 현재

춘추관 사고, 오대산사고, 적성산 사고는 소실되거나, 도난당했으며, 태백산 사고는 부산의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정족산 사고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실에 보관되어있다. 또한 정족산 사고본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정족산 사고의 선정 배경 및 입지적 특성

마니산 사고가 병자호란과 효종 4년 11월 사각 실화사건으로 많은 서적들을 불태우게 되면서, 마니산 사고는 12월 3일에 정족산 사고로 이안되었다. 새 사각을 이곳에 설치한 이유는 입지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정족산에는 고려시대의 중요한 기능 담당했던 정족산성이 산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전등사라는 절

99) 김기태, 2000 「江華島 鼎足山史庫의 保存經緯에 관한 考察」 『畿甸文化研究』 제28집(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9~238쪽.

이 있어 사각을 숙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마니산에서부터 동, 동북쪽으로 3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점도 있었다.

정족산 사고의 입지환경은 다양한 지리적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즉, 단순한 길지적 요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형조건과 자연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로, 풍수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주변으로부터 위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폐적 특성이다. 또한, 용진혈적한 혈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고의 주산으로써 가져야하는 위엄과 높이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수와 대치하는 조건으로서 계곡의 바람 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역으로 기가 흩어지는 원리를 통해 습기를 날려버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족산 사고의 입지는 지켜야하는 지리적 특징, 외부로부터의 은폐될 수 있는 관쇄적 지형, 그리고 길지론에 부합하는 풍수적 특징들이 어우러진 곳이라 할 수 있다.¹⁰⁰⁾

4. 정족산 사고의 서지적 가치

『조선왕조실록』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선사 연구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최대의 문헌이다. 실록은 개인의 편찬물이 아니요, 국가적 사업으로써 편찬한 것이며 국가는 실록을 실록 편찬을 위해 상당한 예산과 기록보관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특히 정족산사고본은 전주사고의 원형으로서 인조 24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원형을 유지했으며 오늘날 국보 151호로 지정, 또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적 보고라 할 만하다.¹⁰¹⁾

100) 박정해, 2013 「정족산 사고의 입지환경」 『민속학연구』 33(국립민속박물관), 125~146쪽.

101) 김기태, 2004 「강화 정족산 사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4집(仁川教育大學校 初等教育研究所), 3~28쪽.

연산군의 정치-무오사화

15 류예원

연산군은 1476년(성종 7년) 11월 7일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났다. 이름은 율이며 생모는 윤기겸의 딸, 폐비 윤 씨이다. 1494년 부왕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조선의 제 10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선왕인 성종 대의 정치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언론기관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국왕·대신·삼사의 견제와 균형에 기반을 둔 정국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삼사의 지나친 언론활동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결과 성종 후반부터는 국왕·대신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문제도 나타났다.¹⁰²⁾ 이러한 성종 대의 정치 상황은 그 아들인 연산군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연산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나아가 전제적인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아버지 성종보다 세조의 정치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 왕권의 강화를 매우 중시했던 연산군이 보기에 선왕 때부터 지속되었던 삼사의 지나친 언론활동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고 그는 국왕의 공적·사적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행태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한다”는 의미의 ‘凌上’으로 규정했다.¹⁰³⁾ 삼사는 이 ‘능상’의 문제로 집권 초반부터 연산군과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었다.

조선 왕조의 어떤 왕보다 강력한 국왕의 전제권 확립을 위해 무단적 방법마저 불사했던 세조와 달리 삼사에게 성종은 이를 극복하고 ‘공론 정치’라는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를 가져온 군주였다.¹⁰⁴⁾ 따라서 성종의 공론정치를 추구한 삼사와 세조의 전제정치를 지향한 연산군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삼사는 ‘수륙제’¹⁰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세조가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왕위를 10년 정도밖에 누리지 못했고, 반란마저 야기하여 생민에게 화가 미쳤다며 세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 냈다.¹⁰⁶⁾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세조의 예를 따르면 연산군 또한 그와 같은 군주로 전락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결국 세조를 따르는 연산군에 대한 질책으로 확대되었다. 연산군은 이렇게 계속 지속된 삼사의 힐문을 ‘능상’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은 무오사화의 불씨가 되었다.

무오사화를 일으키며 연산군이 내세운 명분은 김일손 등이 사초에 세조에게 불충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김일손에게 직접 서찰을 내려 그의 사초가 세조를 무함¹⁰⁷⁾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힐문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조가 제거한

102) 김범, 2015,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의 아침, 94쪽.

103) 위의 책, 95쪽.

104) 최선혜, 2012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에 대한 기억과 충돌」 『서강인문논총』 35(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3쪽.

105) 불교식 제례였지만 선왕의 명복을 빌며 수륙제를 지내는 일은 조선 건국 후에도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졌었다.

106) 『연산군일기』 2 연산군 1년 1월 2일(병술)

107) 무함(誣陷): 없는 사실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남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함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절개로 죽였다고 한 것과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 씨의 능인 소릉 복구를 청한 것 등을 죄목으로 지목하였다. 소릉 복구는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었고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정몽주에 비하여 ‘死節’이라 쓴 것도 세조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왕인 연산군의 정통성까지도 흔드는 일이었다.¹⁰⁸⁾ 연산군은 이것을 날카롭게 추궁했고 김일손은 자신이 반심을 품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문제된 내용은 다른 이들에게서 들었거나 자신의 소박한 판단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김일손이 지목한 인물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말을 김일손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반박하여 진상 확인은 어려워졌고 책임의 소재는 혼미해졌다. 여기에 삼사가 개입하면서 국왕의 생각과 마찰을 일으켰다. 홍문관과 예문관은 사초의 내용보다는 국왕이 실록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더 중시했으며, 대간 또한 거기에 찬동했다. 선왕의 치부를 드러낸 심각한 사건에서도 원칙을 고수한 삼사의 자세는 달리 보면 피의자들을 감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¹⁰⁹⁾ 연산군은 삼사가 실록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후 세력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왕과 주요 대신은 김일손의 불온한 사초에 연루된 인물들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김일손이 압송된 지 나흘 만에 「조의제문」이 발견된다. 「조의제문」은 진나라 때 항우에 의해 폐위당해 죽은 초나라 의제를 조상하는 글로, 김종직은 단종이 폐위되어 사사당한 사건을 비유하여 은근히 단종을 조위한 것이다.¹¹⁰⁾ 앞서 보았듯, 그 존재는 이미 이틀 전 김일손의 공초에서 알려진 상태였지만 이틀 동안 그 문서는 진의가 분석된 두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¹¹¹⁾ 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유자광이었다. 그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일손의 죄악은 다 김종직이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며¹¹²⁾ 사초에 나타난 불온한 생각의 연원을 김종직과 김종직의 제자들에서 찾았다.

「조의제문」의 함의가 드러난 이후 연산군은 “사악한 잡초를 깨끗이 없앨 작정”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대신들은 이에 전적으로 호응하며 김종직을 부관참시의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간은 이에 반대하며 김종직은 이미 죽었으니 작호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시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을 주장했다.¹¹³⁾ 연산군은 대간의 이러한 태도를 앞서 언급한 의심의 확실한 증거로 간주하여 서로 봉당을 맺어 불온한 발언과 기록을 남겼다는 명목으로 김종직 일파와 삼사를 모두 처벌했다.

처벌 대상은 모두 52명으로 사형 6명, 유배 31명, 파직·좌천 등이 15명이었다. 그들 가

108) 최선혜, 앞의 논문, 299쪽.

109) 김범, 앞의 책, 109~110쪽.

110) 한국인물사연구원, 2010, 『핏빛 조선 4대 사화 첫 번째 무오사화』, 타오름, 74쪽.

111) 김범, 앞의 책, 112쪽.

112) 연산4, 7.29 계해

113) 김범, 앞의 책, 114쪽.

운데 김종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은 24명, 나머지는 연관(9명)이나 실록 편찬에 관련된 부류(8명), 또는 대신과 종친이었다.(11명. 무오사화를 일으킨 주요 인물로 평가되는 이극돈도 파직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무오사화의 피화인에서 김종직 일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들과 무관한 부류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화의 표면적 요인과 처벌대상은 사초와 김종직 일파였지만, 그 내면적 의도는 다른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114)

연산군은 이 사화를 엄중한 경고의 표시로 삼으려 했고 따라서 일벌백계를 이유로 김일손 등을 참수할 때 모든 신하가 보도록 했다. 그리고 죄인을 처단한 사실을 종묘사직에 고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김종직과 김일손 등의 사초를 모두 불태우게 했으며, 의정부·육조·승정원·삼사에 이르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115)

참고문헌

- 한국인물사연구원, 2010 『핏빛 조선 4대 사화 첫 번째 무오사화』, 타오름,
- 최선희, 2012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에 대한 기억과 충돌」, 『서강인문논총』 35(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범, 2015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의 아침

114) 위의 책, 117쪽.

115) 위의 책, 118~119쪽.

연산군의 정치-갑자사화와 중종반정

15 원윤진

1. 갑자사화의 배경

무오사화를 거치면서 신진세력, 특히 삼사의 기세가 꺾이고 국왕과 대신들의 권력은 그만큼 증대되었다. 하지만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된 국왕은 국정 개혁이나 경제 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연산군은 연회나 음행 등과 관련된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실현하는 것이 바로 능상의 척결을 통한 전제적인 왕권의 행사라는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¹¹⁶⁾이라고 판단했다.

왕권의 일탈은 곧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연산군 5년, 국가의 1년 예산은 세입(20만 5584석 14두)보다 세출(20만 8522석 1두)¹¹⁷⁾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점점 국왕의 사치가 심해지자 연산군 재위 7년에 이른바 '신유공안'을 제정해 백성들에게 기존 공납보다 더 많은 양의 공납을 요구했다. 이는 연산군 8~9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가뭄·홍수·질병 등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¹¹⁸⁾을 감안하면, 이 시기 경제와 관련한 국왕의 방종은 더욱 무책임하고 해로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사냥을 탐닉하였고, 연회를 빈번하게 열었으며 갖은 음행을 일삼았다. 연산군은 이러한 음행과 유희에 관련된 일의 유출을 막기 위해 궁궐에 인접한 도로의 통행금지와 민가 철거를 시행했고 이것은 발언의 통제로 이어져 폭정의 시작을 알렸다.

왕권의 일탈이 심각해지면서 삼사의 발언은 재개되었다. 그들은 외척과 임사홍 등의 간신들에 대해 비판하며 그들의 탄핵을 요구했다. 또한 국왕의 사치와 패행에 대해 비판했다. 연산군은 이러한 삼사의 간쟁에 강경하게 맞섰다. 삼사와의 대립 속에서도 연산군의 사치와 패행이 지속되자, 대신들까지도 연산군에게 간언을 하기 시작했다. 대신과 삼사가 제휴함으로써 연산군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는 이 원인을 무오사화에서 찾았다. ¹¹⁹⁾ 무오사화가 간접적인 경고에만 그쳤기 때문에 능상의 폐단이 삼사뿐 아니라 대신들에게까지 만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는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숙청이 필요하다고 결단했다.

2. 갑자사화(甲子士禍)와 중종반정

갑자사화는 이세좌 사건과 홍귀달 사건으로 발발되었다. 이세좌 사건은 잔치에서 이세

116) 김범, 2010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177쪽.

117) 이재룡, 1999 「제 5장 조선초기의 국가재정」, 『朝鮮前期 經濟構造研究』, 송실대출판부, 162~163쪽.

118) 김범, 앞의 책, 180쪽.

119) 김범, 앞의 책, 220쪽.

좌가 어의에 술을 엮지른 실수였고, 흥귀달 사건은 손녀를 입궐시키라는 왕명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연산군은 두 사건을 능상의 표본이라고 판단했고 그들의 조상, 자손, 인척들을 철저히 처벌했으며, 그 처벌에 반대한 신하들을 낱날이 적발해 가혹하게 처벌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여 숙청하기 시작했다. 피화 대상에는 현직 대신과 삼사를 아우른 거의 모든 신하들과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되었다. 처형의 방식도 일반적인 처형 외에 부관참시 처럼 극한적인 형벌이 적용되었다. 유배형 이상을 받은 피화인은 239명으로, 96명이 사형되었고, 22명이 부관참시를 당했으며 106명이 유배되었다. 이는 폭정과 패행에 침윤되어 가던 국왕이 신하 전체를 대상으로 자행한 거대한 폭력이었다.

갑자사화 이후 2년 반 동안, 연산군은 폭정은 정점에 달했다. 삼사의 언론권은 부정되었고 신하들에 대한 억제가 심화되었다. 신하들 간의 사적 교류도 금지되었고 신하들에 대한 예우도 격하되었다. 또한 연산군은 왕권을 절대화하며 그의 독존의식을 학문과 종교에 적용시켰다. 경연과 삼사를 폐지했고, 재정악화 속에서도 토목 공사를 확대했으며, 사냥터를 확대하기 위해 민가를 철거했다. 정무는 돌보지 않았으며, 흥청 등의 미모의 여인들에게 지나친 예우와 특권을 부여했다.¹²⁰⁾그들을 위한 예산이 전국의 전세 절반이 되었다는 기록은 연산군의 폭정과 패행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을 감안하면 반정은 거의 필연적인 결과였다.¹²¹⁾연산군 12년 9월 1일, 동대문 부근의 훈련원에 집결한 반정군은 진성대군에게 반정의 경위와 추대 의사를 아뢴 뒤 창덕궁을 포위했다. 동틀 무렵까지 창덕궁은 그곳을 지키던 군사와 시종, 환관, 나인들이 모두 도망가 텅 비었고, 결국 정문인 돈화문이 열렸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던 정현왕후가 연산군의 폐위와 진성대군의 옹립을 운허함으로써 진성대군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했다. 이로써 조선 최초의 반정이라는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만 하루도 안 되어 성공을 맞이했고, 연산군의 12년에 걸친 치세는 막을 내렸다.

3. 갑자사화의 특징

갑자사화는 조선의 역사에서 거대한 정치적 비극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의 중앙정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정치적 숙청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별성을 가진다. 일반적인 사화는 ‘훈구-사림’의 형태로, 예를 들어 무오사화는 국왕과 일부 대신이 김종직 등을 명분으로 삼사에게 제한적 경고를 한 사건이었고 을사사화는 신하들끼리의 충돌이었다. 하지만 갑자사화는 국왕 한 사람이 대신과 삼사 등 거의 모든 신하들을 상대로 한 폭정이었고 무차별적인 숙청이었다. 이는 연산군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왕권에 대한 몽상과 욕망이 만들어낸 피의 결과였다.

120) 『燕山君日記』, 六十二卷, 燕山十二年 四月 二十九日 戊寅

121) 김범, 앞의 책, 220쪽.

연산군을 각색해서 만들어낸 영화나 소설에서는 갑자사화의 원인을 대부분 폐비 윤씨 사건이라고 표현한다. 생모의 비극적인 죽음을 듣고 뒤늦게 피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은 즉위 석 달 만에 생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실을 알았다.¹²²⁾ 뒤늦은 분노와 광기로 인해 갑자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전제왕권을 실현하기위해 벌인 거대한 숙청이며 전제군주로서 군림하기 위한 폭정의 결과였던 것이다.

122) 『燕山君日記』, 四卷, 燕山 一年 三月 十六日 甲申

연산군 유배지

15 박경준

중종반정 이후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도록 한다.’ 라고만 나와 있어 연산군의 유배지가 교동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연산군의 실제 유배지가 어디인가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연산군의 유배지로 추정되는 곳 중 하나는 교동읍성 내에 위치하여 있는 곳이다. 현재 이곳은 ‘연산군 적거지’라고 하여 강화도 향토유적 제 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근처에는 죽은 연산군과 그의 부인인 신 씨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어진 ‘부근당’이라는 당집도 남아 있다. 부근당에는 연산군과 연산군의 부인인 신 씨의 탕화가 걸려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이 연산군의 실제 유배지라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¹²³⁾



그러나 연산군의 유배지가 실제로 이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연산군이 살던 시기에는 교동읍성(1629년에 축조)이 축조되지 않았고, 교동의 읍치 또한 고읍성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몇몇 학자들은 실제 연산군의 유배지가 고읍성 안이나 고읍

성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한다. 화개산 서쪽에서 산 정상 방면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10여분 정도 거리에 또 다른 연산군 유배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고읍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어 실제 연산군 유배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²⁴⁾ 또한 『강화사』에서도 고읍성에서 병사하였다고 고로(古老)의 말이 전해진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¹²⁵⁾

123) “연산군 적거지” 강화도 문화관광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tour/tourInfoDetail.do?tourdiv=all&tour_seq=122.

124) 정요근, 2015 『[역사기행] 교동도 역사유적의 재발견』 『내일을 여는 역사』 59(내일을 여는 역사), 247~248쪽.

125)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1994 『강화사』, 176쪽.

연산군 유배지 비석에는 위리안치라고 적혀 있다. 위리안치는 조선시대 유배형 중 가장 심한 형으로서, 탕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중죄인을 엄중히 가두는 형벌이다. 연산군 때 처음 실시된 이 형은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연산군 12년 1월 4일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잡인을 금하고 데리고 간 노자는 나이와 얼굴 모습을 개에 새겨두었다가 출입할 때에 상고하게 하라. 그리고 가선대부 이상으로 일도 잘 알고 봉송도 잘할 사람으로 진유근리사를 삼아서 나누어 보내어 항상 머무르면서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고 한다.

연산군은 귀양 간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일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모두 절도에 유배시켜 고역을 치르게 하고, 2품 당상관을 진유근리사라 칭하여 보내되 각기 종사관 1명씩을 거느리고 가서 구류당한 죄수들을 엄매어 자유를 제한하였던 것이다.¹²⁶⁾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였던 가혹한 이 형벌이 오히려 연산군 그 자신을 구속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된 이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연산군의 갑작스런 죽음은 의외이긴 하지만, 인위적인 결과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여러 증상을 호소했었다. 소변이 잦고, 얼굴에 종기가 나서 중국에서 약을 구해오고 조제법을 물어보게 했다. 흉격통, 치통, 이질 증상도 있었고, 글자를 반듯하게 쓰지 못할 만큼 손이 떨렸고 얼굴에도 부스럼이 나 진물이 항상 흘렀다. 그의 재위 내내 항상 여러 병을 달고 살았다. 이런 평소의 건강 사태와 갑자기 악화된 거주환경 등을 감안할 때 자연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신을 지탱해주던 모든 현실적 기반이 무너졌기에, 그 상실감의 충격에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탓도 있었을 것이다.

연산군의 사망이후 중종은 연산군을 왕자군의 의례로 장사를 지냈으며 소선으로 수라를 올리게 하고 경연을 정지했다. 연산군은 일단 교동에 안장되었으나, 6년 뒤 폐비 신씨의 상언에 따라 경기도 양주 해촌으로 옮겨지도록 결정되어 이듬해 2월 22일에 안장되었다.¹²⁷⁾ 연산군의 묘소는 현재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77에 소재하여 있으며, 사적 제 362호로 지정되어 있다.



126) 이종목, 2006 『조선의 문화공간1』, 휴머니스트, 299쪽.

127) 김범, 2006 『연산군』, 글 향아리, 312~314쪽.

이건창 생가

15 박현재

1. 이건의 학문과 생애

이건의 자는 봉조, 호는 영제, 당호는 명미당, 본관은 전주로 조선 2대왕인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의 후손이다. 1852년(철종 3), 경기도 강화부 하도면 사곡에서 태어났다. 정치적으로 전형적인 소론 가문이었던 그의 가문은, 이건의 5대조 이광명대에 노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한양을 떠나 강화로 이주하게 되었다. 학문연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강화에서 이광명은 하국 정제도와 학문적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곳에서 양명학, 도가서, 불경 등의 다양한 학문을 연마하게 된다.¹²⁸⁾ 후일 강화학파로 일컬어지는 그 학문적 배경은 이건창 대에까지 이어지며, 이건창은 이러한 자유로운 학풍을 바탕으로 자라나게 된다. 후에 이건창은 정치, 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시·문에서도 대가로 칭송받았다. 대표적으로 김택영은 『명미당집』의 서문(序文)에서 그를 한말의 삼대가로 칭했으며, 이엽은 『명미당집』의 발문에서 이건창을 김택영과 함께 산문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당송팔대가로 칭송받았던 한유, 유종원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명학을 기반으로 한 심학의 연구와 조선의 당쟁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黨議通略』 기술은 그의 큰 족적으로 남아있다.

이건창은 15세가 되던 해(1866)에 강화학파의 오랜 금기를 깨고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다. 이 해는 또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해 왔던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때이기도 한데, 그와 더불어 그 해에 그의 조부인 이시원이 프랑스군의 침공에 분격하여 유서를 남긴 채 자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건창은 외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의 이건창이 개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급제 후에 이건창은冬至使로 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고종의 명에 따라 충청도 지방의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다.

이 때 그는 충청감사 조병갑의 전횡을 들쳐 내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함을 받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유배를 가게 된 배경에는, 왕의 재가가 없어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선정을 베풀었고, 뇌물이나 위협도 통하지 않았던 그의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고종도 행정가로서의 그의 능력을 신뢰 했다고 한다.¹²⁹⁾ 이후 한성부 소윤으로 재직할 당시(1891)에는 상소를 통해 외국인들에 의한 서울의 가옥 매점을 막고자하였으나, 오히려 청나라 공사의 항의를 받고 함경도 안핵사로 좌천되는 경험을 겪었다.

128) 조희각, 2000 「영제 이건의의 생애와 경세관」 『倫理研究』 43(한국윤리학회), 40쪽.

129) 함규진, 2015 「이건창 : 천하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인물과 사상』 206(인물과사상사), 118쪽.

그 후, 이견창은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의 시행 등 여러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비록 구차히 죽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목숨은 남은 목숨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 사람으로 자처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나라가 편안해져서 벼슬살이가 즐겁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마음을 다시는 고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아무 벼슬에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¹³⁰⁾라고 왕에게 밝힌 뒤 강화에 칩거하였다. 이견창의 강화 칩거 후에, 고종은 지속적으로 이견창에게 각종의 중앙관직을 제안했지만 이견창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의 이견창은 현재 강화도 사기리 지역에 계명의숙이라는 사립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에 그의 역량을 모두 쏟아냈다.¹³¹⁾ 47세(1898)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는 평생 동안 올곧은 자신의 신조를 지키며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어지러운 세계 질서 속에서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한 우국지사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다.

2. 이견창과 『당의통략』

『당의통략』은 이견창이 30대 중반이었던 189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견창은 조부 이시원의 『달교소문헌수등』, 대를 이어 가문에 내려오던 기록들을 기초로 당쟁에 관계된 것만 2권으로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당의통략』이었다. 『당의통략』은 선조 8년(1575)부터 영조 31년(1755)에 이르는 180년 기간의 당론에 관한 것을 추려서 편집한 것으로, 편찬 형태는 크게 보면 편년체이지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본말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견창 자신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판단을 독자들에게 미루는 아주 조심스런 접근방식이었다.

이견창의 이러한 조심스런 태도는 서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론에서 “나는 한쪽 당을 위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6대조인 이진유의 ‘신축소’¹³²⁾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다. 다만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 아래 ‘輩’를 붙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다. 일부에서는 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드러내어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돌려서 은연중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통략』이 소론만 옹호하는 일방적인 서술은 아니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¹³³⁾

3. 이견창 생가

明美堂, 또는 이견창 생가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조선 후기 문신이며 대 문장가였던

130) 위의 글, 125쪽.

131) 조휘각, 앞의 논문, 41~44쪽.

132) 경종 1년(1721) 당시 소론의 강경파였던 김일경 등 6인이 노론 4대신을 몰아내기 위해 상소를 올린 것

133) 이상식, 2001 『불거리 읽을거리 2』 이견창과 『당의통략』의 달교일을 여는 역사수4(내일을 여는 역사), 208~212쪽.

영재 이건창이 살았던 집이다.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기둥이나 보의 치목수법으로 볼 때 1백여 년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이 자연석 담장으로 둘러진 'ㄱ'자 평면을 가진 경기지방의 전형적인 한옥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 30호로 지정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옥은 1996년 강화군에서 복원, 정비한 것이다.



이건창 생가 근경

교동향교

15 서희원

1. 향교의 특징

향교는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으로서 국립 교육기관이다. 일명 교궁·재궁이며,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향학이라 불렀다. 향교는 지방의 문묘와 그에 속한 학교로 구성된다. 조선에서 향교는 유교 교육의 최 일선 조직이었다. 조선은 건국 후 전국에 향교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유교 교육, 나아가 정치적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기에 국가에서는 향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는 관부의 규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수를 정하고,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규모에 맞추어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 또한 관부의 위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향교에는 16세 이상이면 신분을 막론하고 입학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역 면제였다. 조선사회에서 군역은 상당히 고된 부담이었기 때문에 교생들에게 면역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었다. 집권체제의 효율적인 운영, 국가의 지속적인 유지와 유교의 광범위한 보급, 확대는 깊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에서 유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임무를 구현하는 향교는 그 자체 절대의 위상을 지닌 공간이었다.¹³⁴⁾

2. 교동향교의 건축배경과 의의

교동향교는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번지에 소재하며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5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려 인종 5년(1127)에 창립하여 한국 최초의 향교로 기록되고 있다.¹³⁵⁾ 충렬왕 12년에 안유가 왕을 따라 원에 가서 공자와 주자의 상을 처음 그려왔고, 김문연 등을 증원에 보내 각종 제기와 악기, 육경과 제자백가의 책, 역사서를 사들여 고려로 가지고 오게 했는데, 김문연 등은 서해 방면으로 귀국하면서 지금의 교동에 기착하고 가지고 온 기물과 책들을 교동향교에 잠시 봉안하였다가 개경으로 이관하였다.¹³⁶⁾

또한 교동향교에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봉안한 것을 계기로 서울과 각 읍에 문묘가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釋奠을 奉行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

134) 정호훈, 2010 「조선 후기 향교 교육과 丹陽」 『달성원문화연구』 13집(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61~162쪽.

135) 김은중, 1998 「喬棟향교의 건축적 특성과 봉안형식에 관한 연구 : 초기형 특성규명을 위한 사례연구」 『달성원문화연구』 17호(한국건축역사학회), 94쪽.

136) 위의 책, 94쪽.

을 올리고 있으며, 典校 1명과 掌議 여러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창건 당시 화개산 북쪽에 있던 것을 조선 중기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1980년 복원되었다.

3. 교동향교의 구조

향교의 구성체계에 있어 교동향교는 전성기의 향교 건축 체제, 즉 내삼문에서 대성전에 이르는 동서 廡와 제기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과, 내삼문에서 명륜당 사이의 명륜당을 비롯한 동서 재를 중심으로 하는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선 향교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¹³⁷⁾ 홍살문을 지나 오르면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에 이른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다시 명륜당 뒤쪽으로 내삼문이 있고, 그 안쪽에 대성전이 있다. 내부에는 공자, 맹자, 증자,



자사, 안자의 5성위와 우리나라의 18유현(정이, 설총, 안유, 김광필, 조광조, 송준길, 주희, 성혼, 송시열, 박세채, 조헌,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김인후)을 봉안하고 동서로 모셨다. 동무와 서무는 한국 18현의 위패를 모시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향토관과 충효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주요 건물

1) 명륜당

일반적으로 앞면에 짝수칸을 쓰지 않는 한국의 목조건축에서 특이하게도 앞면 4칸, 옆면 2칸이라는 칸수를 채택하고 있다.

2) 동서재

두 건물이 강당 앞면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평면은 모두 'ㄱ'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평면 구조는 조금 차이가 있다. 두 건물 모두 벽체를 방화벽으로 하여 화재에 엄격한 보호구조를 택했고, 전성기 향교에서 보이는 평면구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3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7 「교동향교 소장자료 조사보고」 월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수제16집, 10~11쪽.

3) 내삼문

대성전과 동서무가 있는 제사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명륜당 바로 뒤에 있다. 계단 오른쪽 아래에 老龍巖이라는 작은 바위가 있다.

4) 홍살문

원주형 주춧돌 위에 두 개의 원기둥을 세우고 윗부분에 홍살을 얹었으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의 장식을 두었다. 앞에는 수령변장하마비(守令邊將下馬碑)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근현대 시기

- **강화학파** 80
정호원
- **대한 성공회 강학성당** 85
피준경
- **성공회의 역사적 전례** 87
홍은혜
- **광성보와 신미양요** 90
심요한, 홍탁범
- **양난 이후 국방강화의 노력, 망양돈대** 95
성유주
- **평화전망대** 97
이혜윤

강화학파

15 정호원

1. 강화학파의 정의

강화학파란 1709년(숙종 35) 하곡 정제두가 61세 때 강화도 하곡에 자리 잡은 시기 전 후에 형성된 양명학 중심의 학풍을 이어서 지켜온 학파를 말한다. 강화학파의 李匡師로 대표되는 다음 대 핵심 인물들은 1755년(영조 31)에 있었던 을해옥사(나주 패서사건)¹³⁸⁾¹³⁹⁾¹⁴⁰⁾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이후로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고, 양명학조차 정치적 탄압이 두려워 겉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속으로만 지켜나갔다.¹⁴¹⁾

이는 강화학파의 마지막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강화학파를 서술한 방식이지만, 최근의 추가적인 연구결과는 강화학파가 기존 양명학 중심의 학풍이었다는 서술에 덧붙여 양명학 이상의 사상적 경향이 존재했음도 보여준다. 이미 17세기 중반 중국(명말청초)에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상호 왕래하면서 반성하고 장점을 취했던 분위기가 만연했다. 물론 이런 학풍이 18세기의 조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적으로 강화학파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화학파를 양명학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강화학파 역시 이러한 사상의 종합적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⁴²⁾

또한, 강화학파가 경세학의 성격을 가진 국학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음도 확인되었다. 가령, 이광사 가문의 「연려실기술」, 이종휘의 「東史」, 이건창의 「당의통략」들이 그 예이다.¹⁴³⁾

또한 강화학파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다는 지적은 정인보 선생의 연구 이후로 일반적인 통설이나, 그 역시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려진 대로 강화학파의 소론중심 인물들은 을해옥사에 연루되어 많은 좌절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영조연간에는 노론중심의 정국운영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강화학파의 정제두는 무신란 당시에 도성에 머무르며 난이 평정될 때까지 산림으로서 영조에게 시국 상황 타개를 진언했고 그가 건의한 탕평책에 관한 재상 중심의 정국운영은 그대로 시행되었

138) 1755년(영조 31) 나주에서 발생한 패서사건으로, 대부분의 익명서로 주모자를 찾기 힘든 패서사건에서 주모자로 나주 유배 중이던 윤지가 주모자로 지목된 사건. 추국과정에서 윤지가 자백 없이 죽었고, 소론 준론 정파와 수많은 남인들이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강화학파 역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139) 조윤선, 2009 「조선 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대한국사학보수37호(고려사학회)』, 235~238쪽.

140) 박광용, 1996, 「강화학파의 인물과 사상」, 『대한해문화수4(새얼문화재단)』, 204쪽.

141) 위의 논문, 200쪽.

142) 위의 논문, 201~202쪽, 207쪽.

143) 위의 논문, 201~202쪽.

다. 이는 그가 비록 정계에 직접적 진출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그의 문인 중 심육과 윤순은 실제 정국에 참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제자이자 아들 정후일과 사돈관계였던 이보혁은 무신란 평정에 공을 세웠고, 그의 손자 이재협은 정조연간 등용되어 영의정으로 소론계 정파를 이끌기도 했다. 그 외에 철종연간에 즉위공신이었던 소론계 정원용(정인보의 증조부)는 권력의 핵심부였고, 강화도가 철종의 거주지였기에 이시원 등의 강화학파 핵심인물들이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¹⁴⁴⁾

2. 강화학파의 인물들 계보

강화학파의 시작은 널리 알려진 대로 하곡 정제두(1649~1736)가 강화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한국 양명학을 집대성한 하곡 정제두는 포은 정몽주의 후예이며, 당대에도 조부가 우의정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친·백부·종형·조부를 차례로 여의고 16세의 나이로 종손을 대신하여 집안을 이끄는 처지가 된다. 그 후 그는 아우가 과거에 뜻을 두자 과거 공부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개인적인 불행과 학문적 성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디 다양한 학문을 널리 섭렵하려는 博學風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성혼 계통의 절충적 학문 경향을 이어받아 현실적용에 발고 실리적이라고 평가되었다.¹⁴⁵⁾¹⁴⁶⁾

심지어 그는 농업·의술·약재이론뿐만 아니라 패관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문을 탐구했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에 성리학(주자학)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斯文亂賊으로 처벌까지 받던 양명학에 뜻을 둔 것이 역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판단된다. 하곡은 비록 스스로 과거를 폐했으나, 그의 가문이나 학문의 자질이 그를 가만히 은거하게만 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조정의 천거를 받았고, 금방 그만두었지만 1~2번의 직무도 실제로 이행하기도 했다.¹⁴⁷⁾ 또한, 영조 즉위 이후에는 76세가 넘는 나이에도 정치적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영조 대 탕평책의 적극적 시행에 영향을 끼쳤다.¹⁴⁸⁾ 그의 삶은 크게 초년의 京居期(출생 ~ 40세)와 중년의 案山期(41세 ~ 60세), 그리고 만년의 江華期(61세 ~ 88세)로 나뉘지는데, 만년에 안산에서 강화도 하일리로 이거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저술과 강학을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¹⁴⁹⁾

그는 강화도에서 세파를 피해 이주한 전주 이씨 가문의 이광명을 최초의 제자로 받아들

144) 위의 논문, 202~206쪽.

145) 서인(西人)중 소론(少論)들이 대개 성혼의 학풍을 이어받았음.

146) 박광용, 앞의 논문, 206쪽.

147) 정두영, 이상호, 2006 「숙종~영조 초 하곡 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 『대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수 84~87쪽.』

148) 위의 논문, 91~94쪽.

149) 최재욱, 이상훈, 2006 「‘강화양명학’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 관련 주요 문화사적 도표, 연표를 중심으로」 『뽕陽明學수16(한국양명학회)』, 85~86쪽.

였다. 그 후 서로간의 사제 및 혼인관계로 엮여져 학파적 기초가 형성되어 강화학파가 전개된 것이다.¹⁵⁰⁾ 대략적인 흐름으로는 정제두의 아들 정후일과 그의 문인 이광명·이광사·이광신·심육·윤순·이진병·정준일 등이 있었다.¹⁵¹⁾ 또한, 이광사의 학문은 아들 이금익과 이영익에게, 이광명의 학문은 양아들 이충익과 이면백·이시원·이지원에게 이어졌다. 이시원의 심학은 다시 이상학·이건창·이건승에게 이어졌으며, 이지원의 학문은 이견방·정인보¹⁵²⁾에게 이어졌다. 그 후, 정인보의 학문은 연희전문학교 제자인 민영규에게 이어져 강화학파의 학통은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³⁾



위당 정인보

3. 강화학파의 사상

강화학파의 학풍은 양명학 중심이기에, 당연히 강화학파의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은 양명학에 대한 이해부터이다. 양명학은 중국 명대에 양명 왕수인이 발전시킨 심학으로,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의 格物致知의 논리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발전되어왔다. 그는 性即理에서 비롯된 격물치지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으며, 곧 이치란 마음에 있다는 心即理를 주장한다. 그리고 「맹자」의 四端에 차용하여, 인간은 누구나 良知(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선량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했다.(=致良知) 또한, 주자학의 先知後行(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행한다.)를 비판하면서 知行合一(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뤄진다.)을 주장하였다.

조선 사회는 억불숭유 정책의 제도화로 성리학이 주를 이루며 다른 학문은 배척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퇴계 이황(1501~1570)이 양명학의 배척하면서 수용과정에서부터 주자학의 정통적 위치와 입장에서 비판과 제약을 받았다. 당시의 조선 사회는 정국이 노론일당전제로 흘러가게 되면서 학술·사상계가 급속히 程朱學 일변도로 단순화되고 경직화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사상의 자유로운 풍토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졌다.¹⁵⁴⁾¹⁵⁵⁾

그런 와중에서도 조선의 양명학은 교산 허균, 계곡 장유, 지천 최명길 등에 의해 명맥이 이어지다가 하곡 정제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¹⁵⁶⁾ 하곡 정제두는 초년(24세, 과거에

150) 위의 논문, 86쪽.

151) 최재목, 2007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 사상과 동아시아 근대사상」 뚝이천학연구소7(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8쪽.

152) 위당 정인보(1893~1950) ~ 한학자·민족주의 사학자. 양명학의 대가이며, ‘열’사상을 강조하는 역사체계 수립에 노력하는 역사학자였음,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고,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초석을 마련함. 1923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 전임교수로 조선문학과목과 한문을 강의하였음. 저서로는 <조선사연구><양명학연론>이 있음.

153) 최재목, 이상훈, 앞의 논문, 98~99쪽.

154) 최재목, 이상훈, 앞의 논문, 96~97쪽.

155) 정두영, 이상호, 앞의 논문, 85~86쪽.

뜻을 버린 시기 ~ 32세, 심학으로 전향하기 이전의 시기)에 성리학을 공부하던 중,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해석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던 중 양명학을 접하고 심학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양명학을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성리학을 여전히 존신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른 양명후학의 심학자들과는 다른 점이었다.¹⁵⁷⁾ 그는 심즉리(心卽理)에 기초한 양명학을 수용하면서도, 양명학을 한국의 지형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다.¹⁵⁸⁾ 예를 들어, ‘[양지채용도]를 이용한 양지 해석에서 결국 본래의 취지에서는 양명학과 성리학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는 점.’ ‘치양지에서 致를 至(이르다.)로 해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양명 우파적 경향을 뛰기에 주자학과와의 연계 가능성 혹은 주왕절충적 가능성이 논의될 여지가 많다.¹⁵⁹⁾

게다가 강화학파의 학풍이 양명학이 전부는 아니다. 정제두가 양명학을 깊게 수용하였지만, 그는 본래부터 다양한 학문을 널리 섭렵하는 박학다식에, 현실적용에 밝고 실리적이 라고 평가되어왔었다. 이러한 그에게 배운 그의 문인들 역시 이런 그의 학풍을 이어받아, 어느 한 학풍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학에 대한 수준 그 중에서도 역사에 대한 이해 수준도 매우 높았다. 이광사/이공익의 「연려실기술」, 이종휘의 역사연구 등이 그 예이다.¹⁶⁰⁾

참고문헌

- 최완수, 1994 『뫼명찰순례 1수 대원사』
- 박광용, 1996 「강화학파의 인물과 사상」 『뫼해문화수4(새얼문화재단)』
- 우전, 최복희 2004 「정제두 사상 서론」 『뫼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최재목, 이상훈, 2006 「『강화양명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 관련 주요 문화사적 지표, 연표를 중심으로」 『뫼명學수16(한국양명학회)』
- 정두영, 이상호, 2006 「숙종~영조 초 하곡 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 『뫼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최재목, 2007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 사상과 동아시아 근대사상」 『뫼천학연구수7(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강욱, 2008 「문화기행: 유구한 역사의 고장 강화」 『뫼지방재정과 지방세수제2호(한국지방재정공회)』
- 조운선, 2009 「조선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뫼한국사학보수37호(고려사학회)』

156) 최재목, 이상훈, 앞의 논문, 97~98쪽.

157) 우전, 최복희, 2004 「정제두 사상 서론」 『뫼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8~59쪽.

158) 최재목, 앞의 논문, 4쪽.

159) 위의 논문, 7~8, 10, 15쪽.

160) 박광용, 앞의 논문, 206~208쪽.

- 최선일, 2013 「강화 전등사 木造地藏菩薩坐像과 조각승 守衍」 『월간 천학연구』 18(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5 피준경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위치한 사적 제424호의 유적이며 강화성당이라고도 불린다. 2001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대한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코프(Corfe, C. J.)에 의하여 1900년(광무 4)에 건립되었다. 216.9m²의 면적으로 정면 10칸, 측면 4칸인 한식 중층건물이다.¹⁶¹⁾



<교회종>

대한성공회의 역사는 1889년 코프가 초대 한국 주교로 영국에서 서품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고, 한국인에게 처음 세례를 베푼 것은 주교 축성이 있는 지 7년 뒤인 1896년 6월 13일 강화에서였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강화에 제일 먼저 성당을 건립한 것인데, 대한성공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게 되었고, 현존하는 한옥 교회건물로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서유럽의 바실리카(Basilica)양식¹⁶²⁾과 동양의 불교사찰양식을 과감하게 조합시켜 건립하였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언뜻 보면 절처럼 보일 정도로 독특한 목조 건축물이다. 솥을대문 중앙에 태극문양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에 「성공회 강화성당」이란 글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한국 범종을 걸어 둔 종각이 있다.¹⁶³⁾



<내부 천정>

교회의 내부공간은 바실리카양식을 따랐고, 외관 및 외부공간은 불교사찰의 형태를 따랐다. 목재는 압록강에서 운반 해다가 사용하였으며, 경복궁 공사에 참여했던 대궐 목수가 건축을 맡았다. 경사지의 대지를 축성하여 입구 계단, 외삼문·내삼문·성당·사제관을 동남향 종축으로 배치한 외부공간의 구성이 불교사찰의 구름지가람과 비슷하며, 성당 앞마당에는 큰 보리수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외삼문 솥을대문은 팔작지붕으로 담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 칸에는 초대 사제의 묘

외삼문 솥을대문은 팔작지붕으로 담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 칸에는 초대 사제의 묘

161) 문화재청,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大韓聖公會 江華聖堂)”.

162) 고대 로마의 시장과 법정을 겸비한 공공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정방형의 평면 내부를 두 줄 내지 네 줄의 기둥으로 가름으로써 중앙과 양측의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4세기 초엽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그리스도교 보호령의 공포로 그리스도교 성당의 건립이 촉진되면서, 당시의 건축가들이 고대 로마의 초기 바실리카의 기본 형식을 본떠 성당을 급히 건축하면서 이 형식은 유럽 성당을 건축하는 데에 기본이 되었다.

163) 박거루, 1996 「한옥에 스민 대한성공회 역사 : 성공회 강화성당」 달도신문제수31(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전경>

비가 서 있다. 내삼문은 평대문에 역시 팔작지붕이고, 서쪽 칸은 종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성당은 서쪽에 출입문을 배치하여 서구 형태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배(船)모양을 본 떠 뺏머리인 서쪽에는 외삼문 및 내삼문과 동종을 비배치하고, 중앙에는 성당을 두었다. 후미에는 사제관을 배치하여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결국, 이 성당은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건축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가구 구조는 한식 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조와 외관을 한국전통 건축양식에 적응시킴으로서 외래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당 내외부에는 서양식 장식이 거의 없는 순수한 한식 목조 건축이면서도 교회기능에 충실한 내부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한국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성당건물이다.



<고요한주교비>

성공회의 역사적 전래

15 홍은혜

성공회는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사도적 전통과 16세기 이래로 개혁신교회로서 쌓아온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장점들을 지닌 교회로서 우리나라 역시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였으며 강화도를 기점으로 대한성공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성공회 특징이자 신앙의 기준은 1888년 전 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모인 램베스회의에서 결의된 4개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1. 구약과 신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2.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
3. 세례와 성찬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로 받아들인다.
4. 교회의 직제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성직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성공회는 어떤 교파라도 이상의 4개 조항을 믿는다면 형제교회로 상호 일치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표방한다.¹⁶⁴⁾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영국 성공회의 해외선교정책에 따라 1890년 코프(한국명 고요한: 1843~1921) 주교에 의해서였다. 1889년 11월 1일, 조선교구 설립을 목적으로 고요한 주교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성공회의 최고 지도자인 맨스캐터베리 대주교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는 것으로 대한성공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대 한국 교구장으로 임명된 코프주교는 주교서품을 받은 후에 한국 선교를 위하여 통역자들을 모집하고 영국을 출발했으며, 드디어 1890년 9월 29일 의료선교사인 랜디스와 함께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다. 이들 두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 전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서울과 제물포를 오가며 인천, 여주, 진천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수원과 안중에는 보육원을 개설하였다. 이밖에도 그들은 교회설립 및 영어 학교와 영어 성서반 운영, 성공회 관련 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공회를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강화도 성공회가 전파된 것은 1893년 워너(한국명 왕남도) 신부가 섬의 초입인 갑곶에 회당 겸 사택을 매입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이곳에 성공회를 꽃피운 사람은 뒤에 한국성공회 제3대 교구장을 역임하게 되는 트롤로프(조마가) 신부였다. 트롤로프 신부는 1896년 강화도에 부임하여 김희준(마가)에게 영세를 주었고 읍내 중심지에 땅과 집을 매입, 선교의 거점을 확보했으며 이듬해 보육원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강화도 성공회의 터를 닦았다. 한국에서 성공회가 초기에 뿌리를 내린 곳은 경인 지역이 아닌 바로 강화도

164) 대한성교회 <http://www.skh.or.kr/>

였다. 대한성공회는 선교초기부터 한국문화의 토양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고자 토착화에 힘썼다. 선교사들의 한국학 연구는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이러한 토착화에 바탕을 두고 한국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성당들이 지금도 강화읍, 강화도 온수리, 진천, 청주 등에 남아 있다. 이처럼 강화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공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중 상당수를 배출하며 한국 성공회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23년경부터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도 선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14년에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 미가엘 신학원(현 성공회대학교) 1925년에는 수도자를 위한 聖架 수녀회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교회 개혁에 힘을 쏟았고, 초기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지체장애 교육기관인 성 베드로학교, 성직자 양성기관인 성 미가엘 신학원(현 성공회대학교)가 계속하여 설립되었다.¹⁶⁵⁾

성공회는 또한 ‘종교성교회월보’(성교회보)를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일본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반일의 태도를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성공회 선교사들의 경우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이나 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성공회는 직접적인 독립 운동 참여는 없었겠으나 운동이 태동할 때부터 국제정세를 알려주고 운동의 방법을 조언하고 회의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운동이 전개된 후에는 피해상황과 한국민의 입장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였다. 3.1 운동에 있어서도 성공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⁶⁾

대한성공회는 초창기부터 선교의 중점을 병원, 고아원, 보육원, 학교, 기숙사 등의 사회 선교 사업에 집중하였기에 같은 시기 개신교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 이는 성직자의 배출이 공교회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였던 측면도 있었고, 성공회 교회가 대부분 도시보다는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였던 산간벽지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성직자 부족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쿠퍼 주교 시대 그의 재임 9년 만에 교회수 115개 신자수 1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39년 여름부터 불어 닥친 일본제국의 反英사상은 한국성공회 선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교회는 물론 신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몰아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되고 운영되던 신학원을 탄압했다. 결국 한국 성공회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일본인 사제가 조선성공회 주교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성공회는 1940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인천 성 미가엘 신학원이 폐교되고, 병원이나 사회사업기관들도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좌절된 신자들도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대한성교회는 선교창립 50년에 암흑의 역사 속

165) 박거루, 1996 「우리의 조영문화를 찾아서(5) : 한옥에 스민 대한성공회의 역사 ~ 성공회 강화성당」 월도시문제수31(대한지방행정공제회), 2~6쪽.

166) 전해주, 2006 「성공회 병천교회의 3.1 아우내 만세운동에 대한 기여」,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61쪽.

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30년대의 복음화 운동도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 영국에서 1890년 이래 발간되어 오던 '모닝칼'(Morning Calm)도 1939년 10월호, 제 241호를 끝으로 발간이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성공회의 기관지였던 '조선성공회보'도 1941년 2월호인 278호를 발간하고는 휴간에 들어갔다. 이렇듯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의 성공회는 완전히 침묵 당한 교회로서 그 명맥만을 유지해 나갔다.¹⁶⁷⁾

한국인이 처음으로 주교가 된 것은 해방된 지 20년이 흐른 후였다. 1965년 이천환 주교가 서품을 받고, 조선 교구는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로 발전적 분할을 하면서 관구로 독립하였다. 다시 1974년에 대전교구는 대전교구와 부산교구로 분할되어 대한성공회는 현재의 3교구 체제가 되었다. 3개 교구는 각각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교회발전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성공회는 전국에 100여개 교회, 약 5만 명의 신자가 있으며 선교 교육원을 통한 선교 교육과 나눔의 집을 통한 사회 선교, 살롬의 집을 통한 이주노동자 사역 등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¹⁶⁸⁾

참고문헌

- 대한성교회 <http://www.skh.or.kr/>
- 박거루, 1996 「우리의 조영문화를 찾아서(5) : 한옥에 스민 대한성공회의 역사 ~ 성공회 강화성당」 달서신문제수31(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전해주, 2006 「성공회 병천교회의 3.1 아우내 만세운동에 대한 기여」,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7) 조종필, 2005 「일제 말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대응: 일제에 의한 한국교회와 대한성공회 탄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79쪽.

168) 대한성공회 <http://www.skh.or.kr/>

광정보와 신미양요

14 심요한, 14 흥탁범

1. 당시의 시대상황

辛未洋擾가 발발한 19세기 후반은 국내에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종결된 시기이자, 세계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열강의 서세동점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조선의 경우 25대 왕 철종이 1863년 붕어하고 고종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됨으로써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으로 집권하였다. 대원군은 세도정치의 폐해를 몰아내고 중앙집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시기에 수많은 개혁정책을 폈다. 한편 이 시기에 병인박해가 발생했으며, 곧이어 이를 원인으로 프랑스와 충돌하게 되는 병인양요가 발발한다(1866). 또한 동일한 년도에 미국과 관련하여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함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더 강화되었으며 훗날 신미양요의 구실 또한 제공되었다.

한편 이 시기 청은 제 2차 아편전쟁(애로호 전쟁, 1856~60)의 패배로 인해 영국·프랑스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이권을 빼앗겼으며, 이 조약의 중재를 맡은 러시아에게 연해주 지방까지 내어주는 등 서양 열강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권침탈을 당한다. 또한 서양에 대한 연이은 패배는 청 뿐 아니라 중화세계에 큰 충격을 주어 이 시기 양무운동을 진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구로후네(黑船) 사건 이후 보신전쟁을 거쳐 막부가 몰락하고 천황친정이 재개되는 등 새로운 중앙집권정부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이 시기에 메이지 덴노의 즉위와 메이지유신을 통해 막부체제는 붕괴되었고 일본 근대화의 방향이 잡히게 되었다.

2. 광정보의 역사

廣城堡는 고려가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며 구축한 강화 외성의 일부였다. 이후 조선 광해군 10년(1618)에 외성을 보수하면서 새로이 축조한 보루가 되었으며, 효종 9년(1658)에 광정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설치되었다. 숙종 때는 일부를 고쳐 광성돈대, 오두돈대, 용두돈대, 화도돈대 등의 소속 된대가 구축되었고, 이 중 용두돈대는 용머리처럼 뻗어내린 바닷가 암반 위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지로 알려져 있다.¹⁶⁹⁾ 영조 21년(1745)에는 다시 석성으로 개축되었으며, 안해루라는 문루를 짓고 포진지와 화승포가 설치된다.¹⁷⁰⁾ 그러나 신미양요때의 가장 격렬한 격전지였던 까닭에 문의 누각과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은 전투 도중 파괴되었다고 전해진다.

169) 연갑수, 1998 「강화도 답사기 - 신미순의총을 다녀와서」, 『대한국역사연구회회보수33(한국역사연구회)』, 5쪽.

170) 박영순, 2004, 「광정보와 신미양요」, 『달북토수 국토연구원』, 153쪽.



광성보



덕진진

현재의 광성보는 1976년에 복원된 것이지만, 복원 작업의 빠른 속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원 결과는 미숙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1976년 당시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었던 덕진 돈대를 복원하는 원칙에 따라 다른 돈대들도 그에 맞춰 복원했기 때문에, 광성보를 비롯한 돈대들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¹⁾

3. 신미양요의 전투과정 및 광성보의 전투

1871년 미국은 고종 3년(1866) 평양에서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무력침공(신미양요)을 감행한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표면적인 구실일 뿐 실제로는 조선과 좀 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취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⁷²⁾ 실질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기 전, 미국과 조선 관리의 접촉이 이뤄졌지만 조선 관리의 직위 문제로 미국 측이 교섭을 거부했던 점이나 주력함의 해안 접근을 위해 해도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조선과의 군사적 대치를 사전에 의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³⁾ 미국의 탐측 과정에서 발생한 손돌목 돈대 교전은 신미양요의 시발점이자 조미간의 본격적인 무력 대치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군은 손돌목 돈대 교전을 구실로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블레이크 중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상륙 부대를 출동시켰다. 그 규모는 군함 2척을 비롯하여 증기선 등 28척의 배와 현대적인 장비로 편성된 808명의 보병중대로 알려져 있다.¹⁷⁴⁾

최초 목표는 강화해협 가장 남단에 위치한 초지진이였다. 당초 계획은 군함 팔로스호와 모노카시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팔로스호는 상륙 지원 중 파손으로 모노카시호의 지원만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비록 1대의 군함일지라도 함포사격의 위

171) 연갑수, 앞의 논문 3~4쪽.

172) 이태희, 정민채, 2006 「역사·관광학적 관점을 통한 강화도 전적지에 관한 연구~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을 중심으로」 『달천국사지리지학회지』 6(한국사지리지학회), 5쪽.

173) 신효승, 2014 「1871년 미국의 강화도 침공과 전황 분석」 『달천사와 경제』 93(부산경남사학회), 11~12쪽.

174) 이태희, 정민채, 앞의 논문, 6쪽.

력은 상당했기 때문에 조선 군포대는 더 이상 포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상륙부대는 특별한 전투 없이 초지진에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그 날 밤 초지진 침사 이엄이 지휘하는 조선군대가 기습공격을 하였는데, 달선전사에서는 미군 100여명이 살상되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의 보고에는 조선군의 야간 기습을 가볍게 격퇴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¹⁷⁵⁾



모노카시호의 선원들 (전쟁기념관 소장)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한 날 조선인 천주교도를 태운 배가 작약도에 머물고 있던 미군 기함 콜로라도호에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 신부 3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혹시나 미군 함선에 승선했을 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미군이 제너럴 셔먼호의 진상을 묻자 선원들이 정중한 환대와 교역을 약속받고 상륙하였으나 환대를 받고 취해 쓰러지자 살해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미국 측은 조선 정부의 공식 답변보다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광성보 전투에서 보복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초지진 전투를 보고 받은 정부가 병력 증파를 논의하는 사이 미군은 파죽지세로 덕진진을 공략하고 광성진(광성보)로 진격해 나갔다. 광성보는 강화도 요새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가파른 단애(斷崖)위에 자리 잡은 천혜의 요새지로서 진무중군 어재연이 약 천명의 경군(京軍)을 거느리고 수비를 하고 있었다.



1871년 강화도 광성보를 점령한 미군
(전쟁기념관 소장)

미 상륙부대는 포병대와 모노카시호의 함포사격을 중심으로 광성보를 집중 포격하였다. 성내 돌입 후 육탄전이 전개되었으며, 무기면에서 열세에 있었던 조선군은 온 힘을 다해 미군에 맞섰다. 중화기와 갖가지 근접무기를 보유한 미군에 맞서 조선 수비군은 총자루나 돌맹이 심지어 흙을 뿌리거나 맨주먹으로 싸우는 등 처절한 수비전을 펼쳤다. 어재연 장군을 중심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끝내 조선군 전체가 거의 전멸하는 처지에 이르렀다.¹⁷⁶⁾

8시간 가량 치러진 이 전투에서 조선측은 어재연 등 24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였으며, 2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데 그쳤으며 ‘어재연장군기(수자기)’¹⁷⁷⁾ 등을 비롯한 전리

175) 김명호, 2005 달맞이 한미관계의 재조명-셔먼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수 역사비평사, 316쪽.

176) 이태희, 정민채, 앞의 논문, 6쪽.

품들을 약탈해갔다. 미군은 광성진의 관아를 불태우고 초지진을 거점으로 삼아 주둔하였다.¹⁷⁷⁾

광성보 전투 후에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며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어재연이 전사하자 조선은 김선필을 진무중군으로 임명하고 초지진에 주둔한 미군을 야간에 기습하였다. 미군은 사방이 포위된 진지를 버리고 퇴각하였는데, 애초의 제한적 공격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판단과 염하를 향해하며 다수의 전함이 압초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까닭 때문이었다. 미군은 물치도로 퇴각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노획한 군기를 함상에 걸어 놓은 미군 (한국 근현대사전)

20일 동안 포로 석방을 빌미로

4. 신미양요 이후 조미의 대응

辛未洋擾 직후 조선 정부는 강화도에 포군을 증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심도포량미'라는 특별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박규수는 이러한 정책에 찬동하면서도, 그에 앞서 각종 잡세들을 정비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하였다. 더불어 중국에 「미국병선자요자」를 보내 미국이 일삼은 무력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난 선박 구조에 실시했던 우호적 조치들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실제로 신미양요기에 발생한 프리시아 선박 조난 사건을 인도적으로 처리하였고, 그 사실을 중국에 알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은 척화론이 더욱 힘을 받으며 외국에 대한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조선보다 더 난처했다. 페리제독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방식을 조선에 적용함에 있어, 당시 조선이 겪었던 병인양요의 선례를 고려치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원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퇴에 대한 만회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중국을 통한 조선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11여 년이 지난 1882년이 되어서야 조미수호조규라는 이름으로 구체화 되었다.

참고문헌

- 연갑수, 1998 「강화도 답사기 - 신미순의총을 다녀와서」, *대한국역사연구회회보* 33(한국역사연구회)
- 이이화, 2003 *대한국사 이야기 17: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 열강수 한길사*

177) 일명 수자기(帥字旗)로도 알려진 어재연장군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수비하던 어재연 장군이 사용한 군기로, 미군에 의해 전리품으로 강탈된 후 그동안 미국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다. 장기대여의 형식으로 2007년 국내에 들어왔으며, 현재는 강화전쟁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178) 이이화, 2003 *대한국사 이야기 17: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 열강수 한길사*, 160쪽.

- 박영순, 2004 「광정보와 신미양요」 월곡토수 국토연구원
- 김명호, 2005 월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서면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의 역사와비평
- 이태희, 정민채, 2006 「역사·관광학적 관점을 통한 강화도 전적지에 관한 연구~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을 중심으로」 월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수16(한국사지리지학회)

양난 이후 국방강화의 노력, 망양돈대

15 성유주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 내 접경 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두는 보조 장소이다. 대개 높은 평지에 쌓아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둔다. 망양돈대는 강화도 주변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담당했다.¹⁷⁹⁾



조선 숙종 5년(1679) 윤이제가 유수로 재임할 때 경상도군위어영군사 4,300명과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승군 8000명이 돈대를 축조 하였다.¹⁸⁰⁾ 숙종은 1636년에 발생한 병자호란과 같은 혼란을 대비하여 국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강화도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49곳에 돈대를 쌓았다.

조선 숙종 5년, 기미년, 1679년 3월 28일

- 강화도 墩臺 구축은 38개 요해처에는 僮軍을 증액하여 10일 동안에 힘을 합해 완공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시행하기로 함.
- 강화도 돈대공사에 종사하는 승군과 장인에게 양식 2천 석을 더 지급하도록 함.¹⁸¹⁾



특히 강화도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하려던 이유는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여 청국과 교섭을 추진하여 화친을 맺는데 성공하여 환도한 사실이 있으며, 병자호란 당시에도 피난수도이기도 했던 곳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수도인 한양을 지키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맡던 곳이기도 하다.

망양돈대는 남쪽으로 건평돈대까지 3,200m, 서쪽으로 산암돈대까지 1,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포보 관할하에 있었다. 정포보는 광성보와 같은 군사기지의 하나로

179) “망양돈대.”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70000,23 2016년 03월 12일

180) 남궁순, 2001 *달잡비교차 그 찬란한 문화유적을 찾아서* 수 鳳鳴, 79쪽.

181) 서울역사편찬원, 2006 *달처울六百年事* 수제2권, 시사편찬위원회

강화군 전지역에 국방군사시설로서 5진 7보 53돈대 8포대 9봉수 4요망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돈대의 형태는 높이 3m, 폭 2.5m, 둘레 120m에 이르는 직사각형돈대로서 포좌 4문, 치첩 40개소가 있었다. 돈대 상부에는 벽돌로 여장¹⁸²⁾을 돌린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너지고 남아있지 않다.¹⁸³⁾

참고문헌

- “망양돈대.”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370000,23&flag=null (2016-03-12)
- 남궁순, 2001, *달잡비고차 그 찬란한 문화유적을 찾아서* 鳳鳴
- 서울역사편찬원, 2006, *달서울六白年事* 수제2권, 시사편찬위원회

182) 성벽 위에는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낮은 담.

183) 남궁순, 앞의 논문, 79쪽.

평화전망대

12 이해윤

평화전망대의 공식 이름은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양사면 철산리 민통선 북방지역의 입야에 건설되어 우리나라 전망대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황해북도 개풍군의 마을과 주변 문화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내부는 지상 4개 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 지하와 지상 4층은 군부대 전용시설로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1층은 강화도와 북한의 특산물 판매장, 식당, 관리사무실, 게스트룸과 통일을 염원하는 관광객들의 글을 담은 쪽지를 매달 수 있는 통일염원소가 있다. 2층은 전망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울동리 김일성탑 일대 마을의 모습

실과 전시실로 강화와 국방, 끝나지 않은 전쟁, 통일로 가는 길 등 전쟁 이후 남북한 분단의 역사를 전시물과 영상시설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3층의 전망실에는 가까이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직접 북한을 살펴볼 수 있는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되어있다.

평화전망대에서 임진강 하구 바로 너머로 북한을 볼 수 있는데 약 2.3km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북 지역 조망이 가능하다. 오른쪽으로는 개성공단, 왼쪽으로는 중립지역인 나들섬 예정지와 연백군으로 북한주민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공단 탑, 송악산 등을 볼 수 있다.¹⁸⁴⁾

강화평화전망대는 2km 안팎의 거리에서 황해북도 개풍군에 거주하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움직임을 볼 수 있기에 관광명소로서 1년에 약 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분기점마다 각종 언론에서 북한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되는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일시 중단되었다가 약 보름 만에 운영이 재개되었다.

184)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강화둘러보기>명소>강화평화전망대”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tour/tourInfoDetail.do?tour_seq=31



북한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황해북도 개풍군 월정동 마을

지난해 강화군은 강화평화 전망대를 주변 민통선과 연계하여 신안보관광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8년까지 강화북단지역 17km에 안보, 생태, 역사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계획하여 그 초기단계로서 평화전망대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⁸⁵⁾

참고문헌

-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 연합신문, “인천 강화군 북방지역 신안보관광지 조성 추진”, 2015년 01월 13일
- 한국일보,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2016년 02월 15일

185) 연합신문, “인천 강화군 북방지역 신안보관광지 조성 추진”. 2015년 01월 13일.

만든이들

1조

이준희, 강진주, 강태현, 김경호, 김동연, 김진표, 김하윤, 김해인, 변지혜, 조단

2조

성경준, 김은영, 김지후, 노방주, 박진영, 양윤모, 이형석, 조아영, 조하영

3조

김철은, 김한이, 김현진, 류재상, 박현재, 서희원, 이창민, 정수현, 정호원, 조영우, 한성현

4조

박경준, 류예원, 성유주, 심요한, 원윤진, 이해윤, 피준경, 홍은혜, 홍탁범

운영팀

박종현, 오재현, 장산들, 이민철

지도교수

도현철 선생님, 조태섭 선생님

발행일: 2016.03.23

답사일: 2016.03.24~03.26

2016 연세대학교 사학과 봄 정기답사

